

안암동은 대학 캠퍼스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젊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가지만,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면 생활의 시간이 오래 쌓인 주거지가
이어집니다. 변화한 상가 사이 섞여 있는 오래된 주택들은
이곳을 지키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궁금하게 합니다.
이번 <성북 사람들의 구슬생애사>의 열한 번째 주인공은
안암동에서 오랜 시간 살아온 오명자 님입니다. 1960년대
안암동에 정착한 이후 배움과 봉사를 이어오며, 지금도 지역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자리에 동지를 틀고 가꿔온 삶의 시간은 안암동의 시간과
겹쳐 흐릅니다. 배움과 나눔이 넘치는 오명자 님의 삶을 따라,
안암동을 새로운 시선으로 만나보세요.



성북문화원

내 인생은 스킨다빈스

성북 사람들의 구슬생애사 11

성북 사람들의 구슬생애사 11



성북문화원
Seongbuk Cultural Center

sb 성북

기획

강성봉 성북문화원 사무국장

교육

오제연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교수

집필

주인기록단

신혜영 · 조은영

성북문화원 성북학아카이브팀

오진아

내 인생은 스킨다비스

- 오명자의 끊임없는 배움과 나눔의 삶 -

내 인생은 스킨다비스

- 오명자의 끊임없는 배움과 나눔의 삶 -

신해영·조은영·오진아



성북문화원
Seongbuk Cultural Center



sb 성북

성북 사람들의 구술생애사 11

내 인생은 스킨다비스

- 오명자의 끊임없는 배움과 나눔의 삶 -

구술자 오명자

지은이 신해영·조은영·오진아

엮은이 오진아

디자인 노세진

펴낸이 김영일

펴낸곳 성북문화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4길 13-8

전화 02-765-1611

팩스 02-765-1619

성북문화원 www.isbcc.or.kr

성북마을아카이브 archive.sb.go.kr

(C) 오명자 · 성북문화원, 2025

ISBN 979-11-985990-6-3

발행일 2025년 12월 31일 초판 1쇄

이 책은 성북구청과 성북문화원이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성북구 마을기록화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마을기록화 사업은 주민 스스로 기록의 주체가 되어, 자신이 살아가는 동네와 이웃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이러한 취지 아래 체계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역량을 키워 온 성북구 주민기록단은, 성북구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다양한 주민들의 이야기를 꾸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북 사람들의 구술생애사〉 시리즈는 주민기록단 활동의 한 과정으로, 주민과 함께 진행한 구술인터뷰를 바탕으로 개인의 생애를 통해 지역의 시간과 변화를 깊이 있게 담아내고자 기획되었습니다.

기획 강성봉

교육 오제연

운영 오진아·김나연·인치우

한 사람의 삶, 한 지역의 시간

성북문화원은 2018년부터 성북구청과 손잡고 성북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성북구 마을기록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 곳곳에 소중한 기록들을 ‘성북마을아카이브’에 담아내고, 이를 기반으로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 콘텐츠를 생산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은 지역의 목소리를 직접 채록해 온 주민기록단입니다. 주민이 마을의 주체가 되어 이웃의 삶을 직접 기록하고 보존하는 활동은 우리가 성북을 바라보는 풍경을 한층 더 세밀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2020년 시작된 〈성북 사람들의 구술생애사〉 시리즈가 어느덧 열한 번째 권을 선보입니다. 정성껏 꼽아 온 열 손가락을 다시 펼쳐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듯, 앞으로도 성북 사람들의 삶을 차곡차곡 기록해 나가고자 합니다. 올해도 다양한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경험을 쌓아온 주민기록단 기록가들이 참여해 내용을 한층 풍성하게 채웠습니다. 여기에 변함없는 열정과 섬세함으로 교육을 맡아주신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오제연 교수님과 성북문화원 연구부의 노고 덕분에 한 분의 귀한 이야기를 이 한 권에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책의 주인공인 오명자님은 1960년대 안암동에 정착한 이래

60여 년의 세월을 이곳과 함께했습니다. 구술자에게 안암동은 삶의 터전이자, 배움과 봉사를 통해 스스로를 가꾸어 온 성장의 공간입니다. 젊은이들이 오가는 대학가의 활기와 오랜 주민들의 삶이 축적된 주거지가 공존하는 안암동처럼, 구술자 또한 배움과 나눔을 멈추지 않으며 세대를 가로질러 이웃과 교류해 왔습니다. 배움을 이어가고 봉사를 통해 타인과 만나는 구술자의 모습은, 서로 다른 시간이 교차하며 늘 새로운 활기가 흐르는 안암동의 풍경과 자연스럽게 닮았습니다.

이렇듯 한 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는 일은 단순한 회고를 넘어, 그가 살아온 동네를 함께 바라보게 합니다. 구술은 작고 소박한 삶의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도록 말의 기록을 남기는 작업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쌓일수록 지역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점점 또렷해지고, 익숙한 동네의 풍경도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소중한 기억을 나눠주신 오명자 님과 기록에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성북문화원은 앞으로도 일상의 이야기들이 지역의 기록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12월
성북문화원 원장 김 영 일

성북의 힘

살아가면서 실천하기 쉽지 않은 것 중의 하나가 ‘꾸준함’입니다. 꾸준함은 단지 어제 같은 오늘, 오늘 같은 내일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또 쏟아져 쏟아져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과 실천을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꾸준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북구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러한 꾸준함이 눈에 띕니다.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직후 1949년 서울이 커지면서 비로소 역사 속에 그 이름을 드러낸 성북구는 이후 1973년 도봉구 분구 및 1975년 일부 지역의 행정구역 재편을 통해 오늘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한국 현대사와 걸음을 같이 할 만큼 오랜 역사를 가진 성북구이지만, 역사를 소중히 이어가면서도 새로운 도전과 실천을 끊임없이 시도하며 오늘의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이러한 성북의 힘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성북구 주민기록단입니다. 성북구는 마을기록화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어제와 오늘을 기록하는 주체가 되고, 이를 통해 지역 내 정체성을 강화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2019년 주민기록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민기록단에 대한 교육 및 활동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성북구의 마을기록화 사업과 주민기록단 활동은 당시

로서는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선구적인 것이었지만, 지금은 그 성과를 인정받아 다른 지역에서도 성북구를 벤치마킹한 유사한 사업이나 조직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북구 주민기록단은 끊임없는 도전과 실천을 통한 꾸준함이라는 성북의 힘 그 자체입니다.

주민기록단이 지역공동체를 담아내는 중요한 방법은 바로 ‘구술인터뷰’입니다. 즉 지역공동체의 중요 구성원들을 찾아 그분의 생애 전반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그분이 성북구에서 어떤 공동체 활동을 했는지 질문을 던지고 답을 듣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성북문화원은 매년 구술인터뷰의 방법과 실습을 중심으로 매년 주민기록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구술인터뷰의 성과를 〈성북 사람들의 구술 생애사〉라는 책으로 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간행한 열한 번째 〈성북 사람들의 구술 생애사〉의 주인공은 오명자 님입니다. 경기도 가평군에서 태어난 오명자 님은 1963년 결혼과 함께 서울로 상경하여 지금까지 계속 안암동에서 살고 계십니다. 오명자 님의 생애는 책 제목 그대로 “끊임없는 배움과 나눔의 삶”입니다. 여성에 대한 교육이 경시되던 시절에도 고등교육까지 배움의 끈을 놓지 않았던 오명자 님은 성북구에 살면서도 꽃꽂이, 지점토 공예, 구연동화 등을 꾸준히 익히며 강사로서 이를 교육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또 성당을 통해서 18년간 한글 교육 봉사도 하셨습니다. 지금은 안암동경로당 회장과 안암동 18통 통장(전국 최고령 통장)으로 봉사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명자 님은 이 같은 자신의 삶을 “아무 데 갖다 놓아도 적응할 수 있는” 스킨다비스(스킨답서스)에 비유합니다. 스킨다비스는 예쁜 꽃다발이 될 뿐만

아니라 공기를 정화 시키기도 하는데, 이는 평생 끊임없는 배움과 나눔의 삶을 살아온 오명자 님은 물론 그 터전인 성북의 힘을 그대로 상징합니다.

이 책이 간행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먼저 바쁜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서 장시간 귀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오명자 님께 감사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구술면담에 임해주신 성북문화원 및 주민기록단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년 12월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교수 오 제 연

머 리 말

안암동은 대학 캠퍼스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젊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가지만,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면 생활의 시간이 오래 쌓인 주거지가 이어집니다. 변화한 상가 사이 섞여 있는 오래된 주택들은 이곳을 지키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궁금하게 합니다.

이번 〈성북 사람들의 구술생애사〉의 열한 번째 주인공은 안암동에서 오랜 시간 살아온 오명자 님입니다. 1960년대 결혼을 통해 안암동에 정착해, 배움과 봉사를 이어가며 지금도 지역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60여 년을 한자리에 등지를 틀고 가꿔온 삶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책은 구술자가 들려준 이야기를 시간의 흐름과 주제에 따라 총 4부로 구성하였습니다. ‘1부 우리 친정은 냇가가 맑고 좋아요’에서는 고향에서의 추억과 학창 시절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유년기의 따스한 추억과 함께 전쟁이라는 거대한 사건이 한 개인의 삶에 남긴 흔적을 조심스럽게 따라가 봅니다.

‘2부 늘 기도하는 자세로 모든 것을 다 긍정적으로 봤어요’는 배움과 신앙, 결혼과 함께 안암동에 정착해 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사글셋방에서 시작된 신혼살이와 아직 판잣집이 많던 시절의 안암동 풍경은 오늘의 안암동을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오명자 님의 삶을

관통하는 봉사와 배움의 출발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3부 이 터가 황금 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는 가족과 삶의 터전인 안암동의 변화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어진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배움을 통해 생업을 이어가고, 일상의 현장에서 지역의 변화를 체감해 온 주민의 시선이 펼쳐집니다. ‘황금 터’라는 구술자의 표현에서 안암동을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4부 ‘이 나이에 뭘 하겠어요? 내가 살아 있다는 존재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는 현재 지역에서의 활약과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경로당 회장과 통장 활동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생생한 커뮤니티의 기록은 안암동의 오늘을 가장 가까이서 들여다보게 합니다. 이러한 행보는 자기 계발을 통해 스스로를 성장시켜 온 구술자의 삶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오명자 님의 이야기 속 안암동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배움과 노동, 나눔이 이어지며 삶이 확장되는 공간으로 그려집니다. 독자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 한 인물의 삶을 따라 걸으며, 각자의 삶과 살아온 터전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12월

성북문화원 성북학아카이브팀 오진아

차 례

발간사	6
축사	8
머리말	11
약력	17

1부 우리 친정은 냇가가 맑고 좋아요 19

명석 퍼놓고 소라 까먹던 생각이 아주 그리워요	21
오 서방네가 한 7, 8집 댔어요	26
아주 멋있는 아빠라고 저는 지금도 그래요	30
전쟁이라는 거는, 아유... 말도 못해요	32
학교 운동장에다 텐트를 치고 공부했어요	37

2부 늘 기도하는 자세로 모든 것을 다 긍정적으로 봤어요 43

안보성체수도회라는 수녀원에서 전문대 과정을 마쳤죠	45
아버지 엄마도 반대하셨는데... 근데 제가 좋더라고요	50
안암동 그 집에 작은 방을 저희 신혼집으로 썼어요	55
사글셋방으로 들어갔다가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57
안암교 밑은 다 판잣집이었죠	61

3부 이 터가 황금 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65

안암동 주부들 모여서 꽃꽂이하고 참 재밌었어요	67
밤새도록 지점토하던 엄마한테 고마운 걸 느낀다고 그래요	72
고대생들 데모할 때는 우리 집 유리창이 자주 깨졌어요	75
얼마나 손님이 많은지 저녁이면은	79
돈을 포대로 들고 갔어요	79
아주 성실하고 착한 분이었어요	82

4부 이 나이에 뭘 하겠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존재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89

제 성격이 가만히 못 있어요 91

성당에서 봉사 다니면서 18년 동안 한글반을 가르쳤어요 95

봉사하러 갔는데 회장으로 붙들어 댔어요 97

전국에서 최고령 통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02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105

에필로그 110

이미지 출처 114



약력

1941년	경기도 가평군 상면 원흥리에서 팔 남매 중 둘째로 출생
1947년	조종국민학교(현 조종초등학교) 입학
1950년	고향에서 6·25 전쟁을 겪음
1953년	가이사중학교(현 가평중고등학교) 입학
1960년	구산후생학교(인보성체수도회 종교과) 입학
1963년	23세 결혼. 안암동으로 이주
1964년	현 주소지로 이주. 아들 출산
1967년	딸 출산
1960 ~ 1970년대	꽃꽂이 자격증 취득 후 강사로 활동
1980 ~ 1990년대	지점토 공예와 구연동화 등으로 영역을 넓혀 강사로 활동
1990년대 중반	고향식당 운영
1990년대 후반 ~ 2010년대	성당을 통해 18년간 한글 교육 봉사
2001년	일본인 사택을 현 빌라로 신축
2017년	안암동경로당 회장으로 임명
2025년	안암동 18통 통장으로 임명

면담정보

1차면담

면담자: 오진아, 신혜영, 조은영

녹취자: 오진아

면담장소: 성북함께어울림센터(성북구 종암로19길 60)

면담일자: 2025년 9월 4일

2차면담

면담자: 신혜영, 조은영, 오진아

녹취자: 신혜영, 조은영

면담장소: 성북함께어울림센터(성북구 종암로19길 60)

면담일자: 2025년 10월 16일

※ 공식 면담 이외에 여러 차례 비공식 인터뷰 진행

1부

우리 친절은 냇가가
맑고 좋아요



멍석 펴놓고 소라 까먹던 생각이 아주 그리워요

- 선생님 성함하고 생년월일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오명자입니다. 41년 7월 19일생이에요.

- 형제 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팔 남매의 둘째예요. 딸이 다섯, 아들이 셋.



집 앞에서 가족들과 함께

● 동생들이 많아서 힘들진 않으셨어요?

형제가 많아서 그런지요, 그냥 둥글둥글하게 아주 참 힘든 것도 없이 잘 지냈어요. 아무 음식이나 갖다 놔도 형제가 많으니까 다 맛있었고 그냥 옷도 대물림해서 많이 입었어요. ‘내가 맏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은 했어요. 언니는 새 옷을 입는데 저는 또 그걸 물려받아 입었으니까. 내가 맏딸이었으면 새 옷을 입는데 그런 생각을 했죠.

● 형제들이 많고 다복하니까 어릴 때 추억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친정은 냇가가 맑고 좋아요. 여름에는 소라, 달팽이(다슬기)가 많아서 형제들끼리 그릇을 가지고 와서 누가 많이 잡나 시합을 했죠. 어린 동생들은 못 가고 4명이 가서 잡으면 제가 제일 많이 잡았어요. 그거 잡아다가 부추 넣고 된장국 끓이면, 멍석 펴놓고 까먹던게 아주 그리워요. 그 기억이 제일 아름다운 추억이라 그럴까. 지금도 경동시장에서 사다가 가끔씩 해 먹는데 맛이 없어. 옛날에 형제가 많으니까 까먹는 바늘도 없어서 서로 막 차지하려 했어요. 아카시아 가시가 커다랗잖아요. 그거 따다가 그렇게 까먹던 생각이 많이 나요. 형제들 앞으론 그 얘기 해요. 여름에는 옥수수, 감자, 산딸기 따다가 같이 먹고. 우리 형제들은 아주 재미있게 잘 지냈어요.



가족들과 집 인근 계곡에서

● 어릴 때 자주 해 먹던 추억의 음식이 있으세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옛날에는 보신탕들을 많이 해 먹었잖아요. 여름이면은 학교 다니느라고 좀 힘들다고 엄마가 보신탕을 해서 우리들을 아주 배불리 먹였어요. 근데 그 기억이 참, 엄마 마음은 그렇구나... 내가 엄마가 돼 보니까 뭔가 영양 가치 있는 것들을 애들 먹고 싶은, 그 마음은 엄마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덟을 다 배 채우느냐고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지금 생각하면 아주 감사하죠. 한 두세 차례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 보신을 징그럽게 생각할까봐 옛날에는 전기도 안 들어왔으니까 촛불 호야, 옛날에 호야라고 있었죠? 호롱불 같은 거 기름 넣은 거 희미하게 그걸 해놓고 그냥 막 뜯어 먹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기억이,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자매들과 함께

● 형제끼리 나이 터울은 많이 안 나셨나봐요.

두 살 차이인데 형제들 성격이 다 각자 달라요. 언니는 얌전하고 나는 좀 와일드하고. 또 밑에 동생은 또 남잔 데도 아주 새침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서 이상한 소리가 나면 또 얌전한 애가 와서 다 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모이면 아주 재미있어요.

● 특히 우애가 더 깊은 애똥한 동생이 있으셨나요?

저하고 제일 친했던 동생이 셋째 동생, 여자 동생인데 제가 엄마처럼 했어요. 뭔지 모르게 저하고 인연이 제일 깊은 것 같아요. 또 그 중에 하나 개구쟁이 동생이 하나 있어서 누나라고 때리면 제가 다시 더 맞았어요. 두 대 때리면 5대를 맞고…. 개 때문에 언니하고 둘이 짜고 재 좀 두드려 주자 하고 산으로 데려갔어요. 그것도 잊히지 않죠. 잣나무에 새끼로다 꿈꿨던 막대 묶어놓고 내려왔어요. 근데 언제 내려왔는지 와서 이제 안 그럴 테니까 누나 나 때리지 말라고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그 말썽꾸러기 동생이 초년에는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 8남매 중에서 제일 잘 살아요. 개가 지금도 누나들한테 생일이면 꼭 선물 보내요. 그래서 ‘말썽꾸러기가 성공은 하나 보다. 아 말썽꾸러기 그때 때려주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죠.

오 서방네가 한 7, 8집 됐어요

● 고향이 어디라고 하셨죠?

경기도 가평군 상면 원흥리. 저희 집이 앞에는 냇가가 흐르고 아주 좋았어요. 그걸 뭐라 그럴까 지주라고 그럴까. 아버지가 땅이 넓으니까 가을이면은 우리 땅에서 농사지은 소작농들이 농작물 갖다줬어요. 또 동네가 우애가 깊었고, 아버지가 이제 할아버지하고 사법서사(司法書士)¹⁾를 하셨었거든요. 대서사(代書士).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동네 분한테 많은 할애를 해 주셨죠. 한 70호, 80호 정도 있는 시골 동네에서 참 우애 깊게 잘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 기억나는 고향 풍경이나 추억을 이야기해 주세요.

가평에는 잣하고 밤이 아주 풍년이죠. 우리가 잣이 많고, 잣나무가 땅에 많으니까 가을이면 산더미같이 잣이 들어와요. 근데 엄마, 아버지가 너네들 학교 등록금 내려면 잣을 까서 팔아가지고 등록금을 내라는 거예요. 밤은 따다가 풀을 덮어놓고 물을 줘요. 그러면 건드리면 툭 빠져요. 밤은 따기가 쉬워요. 근데 잣은 까는 게 엄청 힘들어요. 무슨 도끼나 아니면 낫으로다가 막 두드려 갖고 이 잣 알갱이가 나오면 그걸 또 막 까불러서 상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하기도방간 적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와서 또 까고, 또 까고, 그 고생을

1) 타인의 위탁을 받아 법률 문서 작성을 대행하는 직업으로 오늘날의 법무사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했다. 일제강점기에는 ‘대서(代書)’로 불렸으며, 해방 후 대한민국 사법제도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 전문직인 ‘사법서사’로 그 역할과 위상이 정립되어 갔다.

많이 했어요.



가평군 상면과 조종면 일대 지도 ©가평군청

● **가평군이 해주 오씨 집성촌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나 마찬가지죠. 우리 집도 오씨, 해주 오씨.

● **집안 대대로 가평에 거주하셨던 걸까요?**

그렇죠. 할아버지는 가평군에 계시고 아버지가 장남인데 원흥리로 오셨죠. 오 서방네가 한 7, 8집 됐어요. 그래서 제사를 집에서 지내면 그 여덟 가구가 다 와서 밥을 먹어야 해요. 우리가 제사가 많았는데 한 달에 밤낮 모여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밤낮 제사 지내면은 그 등불, 호야를 닦아야 돼요. 기름이 있어서 까매지니까 그거 닦는 거를 제가 담당했어요. 그러다 깨뜨리면 혼나고. 그래서 참 좋기는 한데 조금 호야 닦는 게 힘들어서 제사라면은 싫었어요.

● **제사 음식 준비는 안 도와주셨어요?**

저는 학교 다니고 어리니까 그거는 할 줄 모르고 달팽이(다슬기) 잡으러 다니는 것밖에 몰랐죠.

● **집집마다 제사 지내는 게 다르잖아요. 혹시 제사 음식 중에 꼭 해 먹었던 것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탕국이 맛있더라고요. 소고기에다가 북어 넣고, 무를 많이 넣고, 그걸 푹 끓였어요. 지금도 그 탕국 같은 국을 못 먹어본 것 같아요. 참 맛있었어요.

● **탕국 하면은 보통 고기만 넣는데 북어 넣는 게 특이하네요.**

북어를 아주 꼭 넣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맛있었어요.

● **즐거 먹던 다른 제사 음식이 있으셨나요?**

제사 때라면 뭐가 재미있느냐 하면 다식을 만드는데 송화 다식이라는 게 있어요. 소나무에서 왜 노랗게 송화가루가 올라오잖아요. 그 걸로다가 다식을 만들면, 제가 제일 좋아해서 다 먹었어요. 제사상 올려놓을 거 네가 다 먹는다고 엄마가 감추는 걸 제가 봤어요. 송화 다식, 쌀다식, 깨다식 그런 거 하고 약과. 그런 거를 엄마가 중점적으로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먹고 싶으면 해요.

● **흑시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어요?**

송화가루는 꿀에다 재더라고요. 꿀에다 재갓고 그 판이 있어요. 다식판, 목각으로다가 예쁘게 무늬 난 거. 거기다 동글동글 빚어서 꼭꼭 누르면은 아주 예쁘고 동그랗게 나오죠. 다식을 엄마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벌써 제사가 언제 돌아온다하면 다 모여라 그러시고 동글동글하게 해놓으세요. 엄마가 그렇게 눌러서 해주던 생각이 나요.

아주 맛있는 아빠라고 저는 지금도 그래요

● 아버지 직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아버지가 할아버지하고 대서소(代書所)를 하셨는데 사법을 써서 땅을 사거나 그런 법적인 문제가 나면 대리인으로 나서서 문서를 해주셨어요. 그런 일을 할 때는 대서소를 써야만 법적인 문제가 없죠. ‘오진영²⁾ 사무실’이라고 가평에서는 엄청 컸어요. 옛날에는 참 귀하고 귀한 직업이었어요.

● 부모님 두 분이 어떻게 만나셨나요?

엄마는 옛날에 개성 호스톤 여고(개성 호수돈여자고등학교)를 다니시다가 아버지하고 연애하는 바람에 결혼했대요. 엄마네가 부자니까 호스톤으로 학교를 보낸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같은 고향에 이제 오다가다 만나면서 공부도 못 끝마치고 결혼하셨대요. 그래서 엄마가 우리 보고 연애하지 말라고 철모르고 했다가는 덤병 빠진다고 말씀하셨어요.

●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 아버지는 참 멋쟁이세요. 제가 지금 철 들어서 생각하면 연예인이 되실 건데 시대를 잘못 만나서 그 연예인 기질을 묻혔지 않았나 생각해요. 하모니카도 잘 부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또 멋있고. 아

2) 구술자 할아버지의 이름이다.

주 멋있는 아빠라고 저는 지금도 그래요. 노래도 잘하시고, 우스운 얘기도 잘하셔요. 그 시골에서 옛날에 우리 아버지 같은 멋쟁이는 없었죠. 그리고 또 엄마는 그냥 부잣집 맏딸로서 그냥 준수하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잘될 것이다. 그런 지침들을 잘 가르쳐 주셨어요. 엄마의 정신을 우리가 많이 받은 것 같고요. 제가 감성적인 것은 아버지를 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면은 하모니카. 우리 아버지가 일본에서 유학하시면서 외로울 때면은 하모니카 불며 아버지, 엄마가 보고 싶으면 울었다고, 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논두렁에 나가서 하모니카를 그렇게 잘 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하면 하모니카 생각이 나요.

● 아버지한테 하모니카 배우셨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부시는 걸 봐서 아버지 것도 뺏어서 불어도 보고, 또 아버지가 사다 줘서 불어도 보고. 교육을 안 받았는데도 아버지한테 배운 걸로 하모니카를 잘 불고 있어요. 아버지가 하모니카를 부시면 엄마는 따라 노래하셨어요. 〈봄날은 간다〉, 우리 형제들이 다 봄날은 간다를 부르면서 요새는 울어요. 부모님 생각하면서.



1974년 손자들과 함께 있는 아버지

● 아버지에 대한 기억 중에서 특히 선명하게 남아 있는 모습이 있으실까요?

우리 형제가 팔 형제인데 제가 맏아들처럼 아버지, 엄마, 가정에 중심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지금 형제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시골에 계신 아버지는 사법서사를 하시니까 늘 바쁘셨잖아요. 제가 서울로 시집와서 성북구 안암동에 동지를 트니까 대학다니는 남동생은 근처 청량리에 방 얻어놓고 저한테 와서 밥 먹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애들 공부하자 그래서 동생들 다 서울로 전학시켰어요. 부모님도 올라오셔서 가까이 사시다가 청량리에 미주 아파트가 생기면서 그리로 가서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는 형제들이 여덟인데도 아버지와 가까이 사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없는 대신 친정 식구들한테 내 인생의 반은 투자한 것 같아요. 후회 없이 잘 살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전쟁이라는 거는, 아유… 말도 못해요

● 가평이 서울이랑 가깝다 보니까 6·25 전쟁이 있을 때도 피해가 컸을 것 같아요. 6·25 전쟁 당시 피난은 가셨나요?

제가 지금 팔십 다섯이니까 어렸을 것 같잖아요. 제가 10살…. 그런데도 생생해요. 왜정(일제강점기) 때가 아마 서너 살인가 그랬는데 그때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에서 물감칠

을 해서 태극기를 만든 기억이 나거든요. 내가 그 얘기를 하면 “아이고 어린 게 니가 생각이 나냐?” 그래요. 근데 저는 아주 또렷해요. 그 태극기 만드는 그 모습이. 6·25 때는 중공군이 막 쳐들어와 갖고 피난을 못 갔어요. 그때 생각하면 기가 막히죠. 우리 집이 크니까는 중공군이 우리 집을 본부로 만들어서 소 먹이는 가마솥 같은 데다가 밥, 국 다 끓여서 배급해서 주더라고요. 근데 중공군은 사람은 안 죽여요. 그런데 우리는 어린애들도 머리를 뺏박 깎았어요.



1952년 가평군의 모습 ©호주전쟁기념관(Australian War Memorial)

● 머리는 왜 깎은 거예요?

여자면 붙잡아 갈까 봐. 그래서 머리를 뽁뽁 깎고, 군인들이 온다고 하면 광 같은 데 숨었다가 사람들이 가면은 나왔어요. 근데 광에서 이렇게 보면 그 빗자루 만드는 짜리라는 게 있어요. 시골에는 짜리가 많았어요. 중공군들은 그 짜리를 다 훑어다 국을 끓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짜릿국을 훑쳐 먹은 적도 있거든요. 그때 그 맛이 부드럽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 짜릿국을 끓여 먹어요. 다른 사람들이 먹는 거 아니라고 그러는데 저는 먹어요. 한의학을 찾아보니까는 그게 몸에도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 인근에서 전투가 일어난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있었죠. 낮에는 중공군이 판을 치고, 밤에는 우리 아군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낮과 밤이 다 바뀌잖아요. 밤낮으로 계속 바뀌고 우리는 어리니까 부모님이 막 굴속에도 데리고 들어갔어요. 한 번은 비행기가 우리 아군 비행기가 막 폭탄을 터뜨리면서 날아다녔어요. 어휴, 그걸 어떻게 다 말로 해요? 우리가 그 굴속에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거기 폭탄이 떨어지면 굴속에서 폭삭 다 죽는다고 화장실로 내보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있던 방공호 속에 폭탄이 떨어져서, 계속 있었으면 진짜 거기서 죽었죠. 화장실로 가는데, 그 사이로다가 폭탄에서 나오는 그 파편이 막 뚫고 가는데 우리 형제들은 하나도 안 다쳤어요.

● 천만다행이네요.

동네 사람 중에는 몸에 불이 나서 그냥 데굴데굴 구르다가 죽은 사람도 한 닷명 있었죠. 말도 못했죠. 그러다가 집에 들어오니까 폭격을 맞아서…. 아휴, 중공군도 많이 죽었고. 우리 집이 밭하는 본부니까 중공군도 많이 죽었어요. 엄마가 “이게 뭐냐 메주가 여기 떨어졌네.” 그러면서 만져보니까 그게 해골이래요. 사람 두개골이 파편 난게 꼭 메주 같더라고요. 간장 담그는 메주. 그러니까 엄마는 장독에서 떨어진 건 줄 알고 손으로 잡았는데 아휴, 해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은 이해 못 해요. 그 전쟁이라는 거는, 아유… 말도 못해요. 그거 하면 눈물 나죠. 진짜 그때 힘들었죠. 전쟁이라는 건 하지 말아야죠.

● 휴전 협정 맺고 나서는 상황이 나아지셨나요?

근데 우리 가족을 더 눈물 나게 한 거는 몇 년 기른 강아지가 파편이 관통해서, 죽을 때까지 우리 식구들을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고생을 하면서 죽었어요. 그 광경은 영상으로도 못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슷한 누런 개가 지나가면 그때 생각이 나서 한 번씩 쓰다듬어 주고 싶어요. 눈물 나요. 6·25 때는 지금 젊은 친구들은 이해 못 해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먹지도 못하고 도망 다니다가…. 아고, 무서워요. 그리고 요만해도 우리 아군들은 “색시, 색시”하면서 돌아다니더라고. 그 미군들을 뒤에다 세우고 우리 아군들이 총대를 갖고 다니면서 “색시, 색시”하면서 찾아다녀요. 전쟁통에서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여자는 그냥 끌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를 뺏뺏 깎아놓고 엄마가 이렇게 시키면 칠해주고 그러면서 피난 생활을 한 거죠. 그거 지금도 이해 못 하실 거요. 그리고 그때는 폐렴이 많았잖아요. 또 머리에는 이³⁾가 보글보글(버글버글)하고. 몸 뚱이도 다 이지. 위생이 안 좋으니까. 지금은 몸에 나쁘다고 DDT⁴⁾를 가까이하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밀가루 뒤집어쓰듯이 그냥 뒤집어쓰고 있었어요. 휴전되고 학교 가면 이 조사부터 먼저 했으니까.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니까 좀 나아진 거죠.



1952년 DDT 살포법을 담은 포스터 ©국가기록원

- 3) 이목에 속한 곤충을 통틀어 이르는 말. 포유류의 몸에 기생하여 피를 빨아먹고 산다.
- 4) 디클로로디페닐트리클로로에탄으로 부르는 유기 염소 계열의 살충제이다. 6·25 전쟁 전후에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 DDT 살충제를 인체와 의복에 직접 살포하는 방역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졌다.

학교 운동장에다 텐트를 치고 공부했어요

● 다니시던 학교 이름이 뭔가요?

조종국민학교.

● 전쟁 때 학교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나요?



1950년대 천막 교사의 모습
©중부교육 디지털 박물관

아니 교실이 다 불탔으니까 학교 운동장에다 텐트를 치고 공부했어요. 말도 못하죠. 그냥 자기가 밥상이 있으면 밥상 가져오고, 돌맹이 있으면 가져오고. 초창기

에는 책상도 제대로 구비를 못하니까 없는 사람은 땅바닥에서라도 ㄱ(기역), ㄴ(니은) 쓰라고 돌맹이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더 우스운 게 뭐냐 하면 옛날에는 사리마다⁵⁾라 그랬잖아요. 팬티를 일본 말로는 사리마다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없어서 이 밑이 터진 바지⁶⁾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뒤가 터진 바지를 묘사하며) 하면 엉덩이 나오

5) 사리마다는 일본어 ‘사루마다(さるまた Sarumata)’가 변형되어 전해진 표현으로 혈령한 사자형 남성 속옷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6) 풍차바지나 개구멍바지를 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는 그것들을 입혀서들 학교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거 잘못 같으면 이 밑춤⁷⁾이 다 보이는 거야. 그러면 또 남학생들은 “나는 봤다. 나는 봤다” 그러면서 놀리고 다니고 그런 시대였어요. 저는 그래도 집안이 괜찮으니까 아버지가 사리마다는 꼭 사서 그렇게 입혀 보냈는데 지금도 치매 걸린 제 친구가 그때 얘기하면 그 놀림 받았던 그 생각이 나서 영영 울어요. 그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런 시대였어요. 팬티가 어디 있어요? 그때는 없었어요. 엄마가 무명옷으로 꼬매서 해줬으면 몰라도 그때는 팬티도 없고 이렇게 까면 나오는 바지들을 해서 입혔어요.

● 학교 다니면서 재미났던 일화가 있으신가요?

전쟁 때 학교 다니면서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저는 시골이고 학교 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이렇게 학교 가는데 미군 차가 지나갈 때 “헤이, 껌, 찹찹”하면은 그냥 던져주는 거야. 껌이고 사탕이고, 껡통이고. 그럼 그거 집으러 가다가 넘어지고, 또 그거 집어서 또 까먹고 그거 기억이 있어요. 저는 좀 호강한 편이었는데 뭐냐면 우리 동네에 왜 옛날에는 전쟁 때문에 아주 나이 많은 사람도 끼어서 공부를 했어요. 그때 오빠들이 산에서 소나무를 톱 꺾어다가 “명자야, 너 여기 앉아”하고 소나무에 태워요. 그러면은 그거 끌고서 학교를 저를 데리고 다녔어요.

7) ‘춤’은 바지나 치마처럼 허리가 있는 옷의 허리 안쪽 부분을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밑춤’은 바지의 아랫부분, 곧 가랑이 쪽을 가리키는 구어적 표현으로 보인다.

● 소나무에다 태워요?

새 나뭇가지를 하나 뜯고, 그걸 붙잡고만 있으면 그 오빠들이 끌고서 저를 학교에 데려다 줬어요. 지금도 참 고마우신 분들이죠. 시골 찾아가면 벌써 돌아가셔서 그 자제분에게 제가 가서 그런 얘기하고 꼭 먹을 거 사서 들이밀고 와요. 그런 시대였어요. 옛날에 얼마나 영세했냐 하면 자동차 타이어를 잘라다가 석유 속에다 집어넣으면은 그 타이어가 고무가 돼요. 그래서 그 기억이 나요. 타이어를 칼로 잘라서 석유 속에다가 한 일주일만 담가놓으면은 그게 말랑말랑 고무가 되더라고요. 그걸 지우개로 썼어요. 그때 지우개가 어디 있어요, 지우개가. 그래서 그걸로 다 지우게 하던 생각이 나요.

● 졸업하실 때까지 천막에서 공부하신 건가요?

졸업할 때는 천막이 아니고 가(假) 교실을 지어준 것 같아. 그때쯤에는. 초등학교 때는 제가 무용을 잘해서 학예회 때 나가서 무용도 많이 했고, 노래도 많이 했어요. 지금도 동창회에서 ‘재롱둥이 오명자’라고 지금도 그래요.



학창시절 친구와 함께

● 학창 시절 즐겨 하시던 놀이가 있나요?

고무줄놀이하는 거. 지금 생각하면은 미군이 많았잖아요. 중학교 세울 때 미군 원조를 좀 받았나 봐요. 그래서 미군들이 와서 이제 자기 나라에 할 뉴스를 하려고 그러는지 영상을 이렇게 찍어가잖아요. 고무줄 하는 걸 보고 나를 맨 앞에다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서 고무줄 하던 생각이 나요. 제가 혼자 생각에 ‘카메라를 내가 잘 봤나 왜 나를 뒤에 있는 걸 앞에다 세워놨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이제 지나고 나니까는 그런 생각이 많이 나요.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는 뉴스 하려고 그렇게 찍어간 것 같아.

● 중학교 이름은 뭔가요?

가평에 제가 다닐 땐 가이사, 카이사 중학교예요. 왜 카이사냐, 가평 고지가 제일 위험한 고지였어요. 미국이 군대를 우리 한국 전쟁 때 제일 먼저 보낸 곳이라요. 거기가 원조도 많이 받고 늘 미군이 상주해 있었고 그랬어요.⁸⁾ 근데 그 가평 고지에서 제일 먼저 전사한 사람이 카이사⁹⁾래요. 그래서 그 ‘카이사’란 이름으로 카이사 중학교를 미국에서 지어줬어요. 미국의 원조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다닐 땐 카이사 중학교였는데 졸업하고 얼마 있다보니까 가평중고등학교

8) 가평 지역은 6·25전쟁 초기 미군이 최초로 투입된 지역은 아니나, 1951년 가평 전투 이후 중부 전선의 핵심 방어 거점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1952~1953년에는 미 육군 제40보병사단이 가평·양평 일대에 주둔하며 고지 방어와 경계 임무를 수행해, 지역 주민들에게 ‘미군이 상주하던 위험한 고지’로 기억되었다.

9) 케네스 카이저(Kenneth Kaiser Jr): 6·25전쟁에 참전해 1952년 1월 20일 금성지구 전투에서 19세의 나이로 전사한 미 40사단 첫 전사자다. 40사단은 1952년 장병 후원금으로 가평 지역에 카이저 중사의 이름을 딴 ‘가이사 중학원’을 지었다.

로 바뀌었더라고요.

제3회 졸업(1956년)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정수일	류일웅	정재열	김정수	이기선	이용환	최병수	장광순
김사영	김종문	신동환	백현기	이병철	이봉구	김정환	박선만
이명용	신성철	신경철	이인영	강인석	임세준	김영수	김창근
안상철	변명근	방화영	주병록	조정현	이순구	김승수	장규순
장치환	용환기	이정의	송익달	김세명	신영자	박인송	목현숙
박경자	강애자	오명자	최춘자	이석연	장인자	오규환	김재숙
김주명	손미대	김주인	김춘남	원애재	조영근	방재웅	최순규

가평중학교 3회 졸업식 졸업생 명단

© 가평문화원, 『2005 가평군 중등교육 50년사』, 2005, 325쪽.

2부

늘 기도하는 자세로
모든 것을 다 긍정적
으로 봤어요



인보성체수도회라는 수녀원에서 전문대 과정을 마쳤죠

● 대서사였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모습이 배움에 대한 열망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어느 정도 머리가 트이신 분들이니까 “그냥 여자고 남자고, 하고 싶다면은 끝까지 배워라.” 그랬는데 우리는 형제가 많잖아요. 언니는 언니대로 맏딸이니 공부하라고 그랬는데, 저는 둘째다 보니 그냥 내버려 뒀어요. 또 밑에는 남동생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찾아다니면서 제가 알아서 그냥 했어요.

● 그때 선생님 마음은 어떠셨어요?

지금도 엄마가 생전에 나를 제대로 된 대학을 보냈다면 내 성격으로 봐서 지금 뭐가 됐을는지 몰랐을 거다. 그런데 나는 대학을 안 보내니까 가톨릭에서 하는 기숙사에서 공부한 거죠. 돈이 안 들어가니까 인보성체회라는 수녀원에서 그 안에서 전문대 과정을 마쳤죠. 지금도 후회는 안 하지만 아쉬움은 있어요. ‘진짜 내 간판을 내놓을 수 있는 대학을 나왔다면은 내가 조금 업그레이드 안 됐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를 늘 했어요.

● 당시 진로를 결정하실 때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는 간호대학이 초창기였어요. 아버지 몰래 명동에 있는 가톨릭대학 가서 간호장교 시험을 봐서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그 통지서를 가지고 아버지한테 내보였는데 그때는 간호장교 이미지가 안 좋았어요. 거기 가서 간호장교 될까봐 엄마가 붙들어 놓고 못 나가게 단발머리 한쪽을 톱 잘라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못 샀어요. 사실은 내가 여군이 될 건데 고거를 못 샀어요.

● 그 당시 간호장교 이미지가 어땠어요?

그때는 남자들의 노리개로 생각했어요. 어르신들은 여군을 아주 이미지를 가난한 사람이 가고, 남자의 노리개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엄마, 어른들 다 반대하셨어요.

● 속상하셨겠네요.

아버지가 어느 날 서류를 갖다주면서 “야 여기 천주교인데 너 천주교 가면은 기숙사에서 공부한다더라 한번 알아봐라.” 그러세요. 주신 서류를 가지고 뛰어다녔더니 천주교에서 윤을수¹⁰⁾ 신부님이 수녀원 안에 성체수녀원¹¹⁾이라고, 인보성체수녀원 안에 전문대학 과정¹²⁾이 있대요. 그러면서 천주교 신자가 아니래도 가서 시험 봐서 공부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숙사도 있고, 돈도 하나도 안 든대요. 저희가 원래는 기독교 신자였어요. 집 앞에 장로교회를 다니면서 새벽 예배를 꼭 보고, 찬양대회에서 늘 노래도 해서 저는 종교를 안 바꿀 줄 알았어요. 전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서 떨어질 줄 알았더니 통지가 오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라도 가자하고 가서 남들은 2년 만에 졸업하는데 저는 3년 만에 했어요. 영세(領洗)를 안 했기 때문에, 천주교의 입문 과정에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걸린 거죠. 그때는 천주교가 입문하기 엄청 어려웠어요. 거기 가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영세 받고 뭐 하다 보니까지는 1년이 늦더라고요. 그 안에 사회과가 있고 종교과가 있었는데 저는 종교과로 졸업했어요. 근데 그때 이대에서 사회학과가 처음 생겼어요. 거기서 편입을 하려니까 안 받아주더라고

10) 윤을수 라우렌시오 신부(1907-1971): 1951년 골롬바사를 설립해 사회사업을 시작하고, 1956년 구산후생학교와 1957년 수도반을 통해 사회사업가와 수도자 양성에 힘썼다. 이러한 공로로 1963년 문화훈장 구호·자선 부문 대통령장 표창을 받았다.

11) 인보성체수도회: 1956년 구산후생학교 운영 과정에서 구분된 수도반을 모체로 형성된 가톨릭 여성 수도회이다. 1957년 오류동 공소를 중심으로 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1950년대 후반 교구 인가를 거쳐 수도회로 자리 잡았다.

12) 구산후생학교(鳩山厚生學校): 1956년 윤을수 신부가 가톨릭 사회사업 국제연합회와 연계해 설립한 2년제 여성 사회사업 전문학교로, 경기도 부천군 소사읍 오류리(현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에 위치했다. 학교는 실습 중심 교육을 실시했으며 1964년 폐교되었다.

요. 우리 전문대학 인가가 안 났대요. 그래서 그냥 거기만 졸업하다가 시집 온 거예요.

● 학교 안 기숙사 생활은 어떠셨나요?

그냥 거기서 먹고 자고 했는데 로마 교황청의 원조를 받아서 아주 대우가 좋았어요. 식품도 치즈는 깡통으로다가 무료로 다 배분하면서 아주 식사도 참 잘해주고, 그 수도원에서 풍요롭게 지냈어요. 거기가 수도 생활을 기본으로 하는 학교니까 늘 기도하는 자세로 모든 것을 다 긍정적으로 봤어요.



인보성체수도회 설립 50주년 기념 사진

● 종교와 관련된 교육을 따로 받으셨나요?

사회과나 종교과는 수녀님하고는 거리가 멀고 사회학을 공부하죠. 그러면서 이제 방학 때면 활동은 주로 천주교 계통으로 파견 나가서 일을 했죠.

● 파견은 어디로 나가셨어요?

저는 청평 고아원¹³⁾에 가서 고아들을 많이 봐줬죠. 청평 고아원이 엄청 컸었어요. 근데 이제 불이 나면서 고아원이 없어지고 그냥 성당만 있어요. 제가 종교과니까 신학 공부 비슷하게 공부했죠. 거기에 많이 밀접하고 있으면서 제가 수녀원에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하면 수녀원으로 갈 거라고 아버지, 엄마한테 편지를 썼죠. 수녀원에 갈래도요, 내 치마저고리, 옷하고 이불은 가져가야 돼요. 그냥은 못가요. 그러니까 편지를 썼죠. “엄마, 나 까만 치마, 흰 저고리 두 벌, 여름하고 겨울 거 해주고, 이불은 그냥 목화솜으로 이불 하나만 해달라. 나 수도원 들어갈 거야. 언제쯤 내려갈 거다.” 그렇게 편지를 썼는데 한 달 뒤에 ‘모(母) 위독 급상경’이라고 아버지가 전보를 쳤어요. 엄마가 위독하다고 그랬더니 사감 선생님이 빨리 내려가라고 차표까지 끊어서 주시더라고요. 집 앞에까지 올면서 내려갔더니 엄마도 괜찮고 아버지도 괜찮으세요. 아버지께 “왜 그랬어요?” 하니까 웃으시면서 너 수도원에 갈까봐 내려오라고 그런 거라고 하

13)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에 위치했던 고아원으로, 1952년 6·25전쟁 중 전쟁고아 보호를 위해 설립되어 윤율수 신부가 운영하였다. 1953년 청평 공소는 청평 본당으로 승격되었으며, 1970년 3월 친애원 건물은 화재로 전소되었다.

세요.

● 수녀가 되려고 하신 이유는 뭐예요?

기숙사에 있다가 보니까 참 좋고 아름답고 내 생활이. 해도 후회 안 할 것 같고. 수녀님이 되고 싶었어요. 뭐 아무것도 욕심 없이 고아원에 가서 애들하고 같이 노는 것도 좋았고. 우리는 방학 때면 수녀님들하고 가서 같이 나병(한센병) 환자촌에 가서 일도 했어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얼마 있으니까 괜찮더라고요. 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천사 같아서 나도 수녀님 돼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수도원에 가고 싶었어요.

아버지 엄마도 반대하셨는데…. 근데 제가 좋더라고요

● 집으로 돌아오신 뒤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버지가 어디 나가지 못하게 꼼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친정집을 사단장이 썼어요. 집이 크니까는 사단장 건물이 짓기 전에 우리 집을 빌렸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서울을 다녀오신다 하니까 지금 남편이 지프차, 사단장 차로 아버지를 태우고 서울까지 모셔다 드리고 오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국군 병원에 아버지 보러 갔더니 아버지는 민간인이니까 탄 병실에 있고, 우리 신랑도 탄 병실에 있더라고요. 뒷자리에 타 계셨던 아버지가 많이 다치셔서

아주 정신을 못 차리시고, 그 군인을 찾아가 보니까 그 사람도 그렇
더라고요. 그렇게 병원을 오락가락하면서 나는 또 배운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서로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죠. 아버지도 이제 어느 정도 나
으시고, 또 남편 되는 사람도 괜찮은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은 미
혼에 오는 사람도 없고 아주 불쌍하고 초라하더라고요. 그래 물어봤
더니 고아래요. 그래서 정성껏 보살피면서 천주교를 믿으면 고아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옆에서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으니까 천주교를
믿으라고 전교했죠. 성당에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6개월 만에 다
마스터를 해야만 영세받는 자격이 생겨요. 그래서 그 책을 갖다주고
“이거를 공부하세요.” 했는데 한 열흘 됐나, 오라고 해서 갔더니 달
달달달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 책 한 권을 다 외우고 있어요. ‘참 머
리도 괜찮네’ 생각하면서 왔다갔다 한 거예요. 그런게 좋게 보이더라
고요.



1990년대 남편과 미국 금문교 앞에서

● 그런 모습에 마음이 좀 가셨나 보네요.

불쌍해 보여. 그리고 아버지 면회 갈 때는 꼭 가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던 찰나에 사단장 부인이 오더니 “학생, 학생” 불러요. 그래서 갔더니 얘기 좀 하자 그래 그래서 뭐 당돌하게 “무슨 말씀하시려고요?” 그랬더니 앉으라고 그러면서 내 손은 자꾸 만지작만지작 하면서 “학생은 학교 나오고 바로 수녀원으로 갔어?” 그래요. “네.” 그랬더니 “우리 집사¹⁴⁾가 학생을 좋아하나 봐. 병실에 가면 ‘오늘 면회 오면 좋은데….’” 그런대요. 사단장 부인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요. “뭘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돼서 조금 미안한 생각이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수녀원에 간다며 그럼 수녀원에 가는 것보다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저를 달래주더라고요. 그때는 굉장히 섭섭했어요. ‘내가 뭐 불쌍한 사람 돕는 사람인가 왜 저런 말 하나’란 생각이 들어서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보니까는 그리스 신화 책이 우리 방문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저쪽 사모님이 사 놓고 갔대요.

● 사단장 부인이 사다 두신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부인이.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고 또 그리스 신화는 제가 많이 읽는 책이고 그러니까 ‘그래도 눈은 있네’ 그러면서 그 책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남편이 사서 거기

14) 군대에서 가정을 돌보는 군인.

다 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는지 결혼하고 싶더라고요. 아버지, 엄마가 네가 나이도 짝 차지도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결혼이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대하시고, 할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깐 말도 못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좋더라고요. 괜히 반대하니깐 더 가고 싶더라고요.

● 그 책이 계기가 돼서 조금 더 마음이 열리셨던 거예요?

예, 그 책에. 그리고 예뻐 보여요. 그 사람이 이상하게 불쌍하고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그래 수녀님 되는 것보다 한 번 살아보자.’ 생각했어요.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내가 “그 그리스신화는 어떻게 해서 샀어요?” 물어보니까 “천주교 다닌다는 등, 수녀 된다는 등 하니깐 신화를 샀지, 뭐.” 그러더라고요. (웃음) 지금도 있어요. 그 책이.

● 부모님 반대가 심하셨나요?

엄마, 아버지 나 시집간다고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나서 두드려 맞고 며칠을 못 나갔었어요. 사단장 부인 왔을 때 저 결혼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다 주선할 테니 엄마, 아버지 반대해도 참석만 해달라고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성당에는 혼배성사¹⁵⁾라는 게 있어요. 혼배성사하면 결혼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먼저 청평 성당에 가서 혼배성사를 받고, 엄마 아버지 참석만 해달라고 해서 종로 동원 예식

15) 가톨릭 교회에서 거행하는 결혼 의식으로, 일반적인 혼인과 달리 교회 안에서 성사로 인정된다. 법적 절차를 넘어 교회 공동체가 새로운 가정의 탄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예식이다.

장¹⁶에서 결혼했어요. 군인들만 있는 속에서 우리 친척은 하나도 안 오고. 그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죠.



동원예식장 광고(『동아일보』, 1962.10.29.)©한국사데이터베이스

16) 서울시 종로4가에 위치했던 예식장이다.

안암동 그 집에 작은 방을 저희 신혼집으로 썼어요

● 친정 도움을 받기 힘들셨겠네요.



구술자가 그린 꽃 그림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사는 거 보고, 제가 이 꽃 중에서 해바라기 꽃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나한테는 하나님과 성모님이 계시니까 그 빛만 따라가면서 살면 성공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서 나와요. 수녀님들이 참 알뜰하시거든요. 이 물 하나도 함부로 못 버려요. 그때부터 그 알뜰한 모습을 본받아 살림을 했

죠. 우리 아빠(남편)가 계급이 높지도 않았어요. 상사¹⁷⁾, 상사였어요. 계급이 높지 않아서 그 월급 갖고 사는 게 힘들었어요. 돈이 없어서 그런지 사단장 서울 집, 안암동 그 집에 작은 방을 저희 신혼집으로 썼어요.

17) 하사(下士)-중사(中士)-상사(上士)로 이어지는 부사관 계열의 상급 부사관 계급이다. 1960~70년대에는 사실상 원사 계급이 편제되지 않아 상사가 현장 실무의 핵심 책임자 역할을 맡았으나, 급여 수준은 그에 비해 높지 않았다.

● 사단장이 집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사단장, 예철수 장군, 예 장군님이 안암동 토백이셨어요. 사단장이니까 내 친정집을 사단장 집으로 쓰셨고, 원 집은 안암동이셨어요. 그 집 방을 신흠집이라고 저를 줬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신흠 때 시아버지처럼 아주 혼났어요. 남편의, 그것도 별 둘짜리 장군님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절절매고 살았지. 아주 그게 살면서 제일 어려웠던 순간이에요.

근데 사모님이 엄청 쾌활하신 분이래서 그분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예 장군 집 있는 그 옛날에는 식모라고 그랬잖아. 그 아주머니가 나를 무시하고 막 일을 시키더라고요. 오랫동안 거기서 갇은 텃새를 어떻게 부리는지 그 사람이 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그 예 장군 사모님한테 나 저 아줌마 무서워서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랬어요. (사모님이) 그 아줌마 야단을 치니까 그 아줌마가 나간대요. 그래서 나가는 건 또 안 되니까 내가 나가겠다 그랬어요. 그냥 사글셋방 하러 갔던 거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때가 내 일생 살면서 제일 자존심 상하고, (가슴에 손을 얹고) 고통받았던 순간이 그 아줌마한테 구박받은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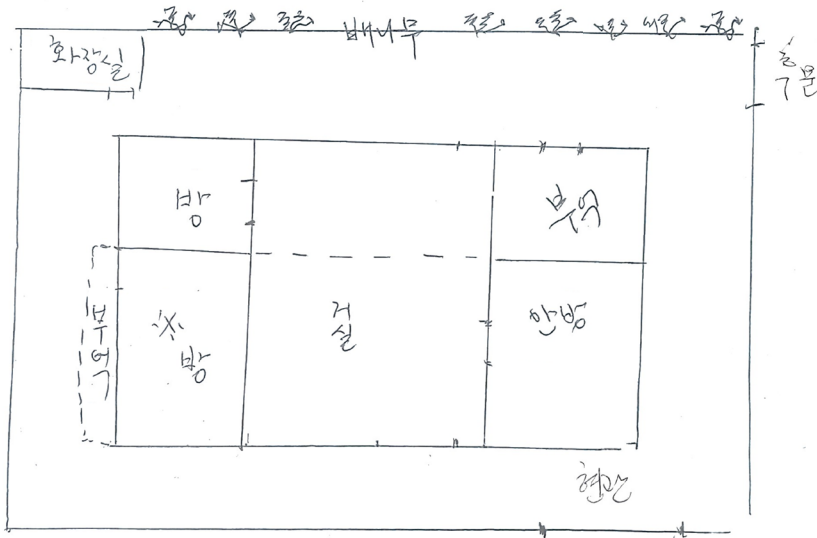
사글셋방으로 들어갔다가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 식모 아주머님한테 구박받으셔서 사글세를 얻어 나오신 거예요?

예, 그 아줌마 때문에. (장군님이)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지만 예 장군님 나가시고, 사모님 나가시면 나보고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자기 할 일 나한테 시켜요. 근데 내가 공부만 하다 왔고 수녀원에서 기도만 했지 뭘 알아요. 일을 못하면 또 타박하고, 하도 시어머니처럼 나를 막 그러니까 마르더라고요, 내가. 체중이 빠지고 그래서 나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 옆에 사글셋방으로 들어간 거지. 역사가 그렇게 된 거야. (웃음)

● 지금까지 같은 곳에 살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예, 그 집이 일본 사택이야. 그쪽은 다 일본인 사택이었어요. 그 집 주인이 어느 학교 교장이었는데 또 방을 하나 또 내놓더라고요, 다른 데로 전근한다고. 그래서 또 그 방을 또 세를 얻었어. 그러니까 방이 2개가 됐잖아요. 그리고 또 몇 년 살다 보니까 집을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남편 퇴직금 받은 돈으로 그 집을 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사단장 집에서 한 2년 살다가 그 집을 셋방으로 왔다가 전세로 왔다가, 샀다가 지금 새로 지은 거지. 지하 철이 생길 때 집 균형이 깨져서 집에 금이 가요. 조금 기우니까 집을 새로 지었죠.



구술자가 그린 집의 구조

● 일본인 사택이었을 당시 집 구조를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됐더라... (고민하며 그린다) 요게 이게 현관, 현관이고 마루고 없어요. 마당은 이렇게 있었지(집이 중앙에 있고 사방에 담을 두른다). 장독대 위에는 장독이 있고, 밑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실에 미닫이 문이 있었어요. 하나, 둘 있을 때는 여기서 밥을 먹었어요. 이제 여기는 주방이고 그리고 여기 뒷문이 또 있고. 여기가 내가 세 살았던 방이에요(※표시가 있는 방). 여기 요 방인데 바깥으로 부엌을 달았어. 나는 요 방에서 살다가 요 방(바로 아랫방)을 또 쓰고. 여기는 앞문, 큰 길이 있고. 뒤로 가는 대문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배나무로다가 담을 주욱 쌓았더라고요. 우리 아들 애기

때, 아장아장 걷는데 배나무에는 인분을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잘못해서 인분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게 가슴 아팠죠. 그러다가 아빠 예편하고 그 집을 사면서 담을 쌓았지.

● 현관(대문)으로 들어와서 방에 들어오신 건가요?

우리 아빠랑 아들은 대문으로 다니라고 하고, 나는 여기로, 이 후문으로 다녔어요. 이렇게 쓰니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이 소리 다 들리는 건데. 여기가 골목길이고 뒷집이 또 있고 여기서 출퇴근하면서 이 주인이 좀 싫어할까봐 조심조심 뒷문으로 가고 앞문으로 가고 눈치 봤던 생각이 나요.

● 방이 몇 개인가요?

방이 3칸가 4칸가 그래요. 하여튼 다다미방이 하나 있더라고. 온돌을 안 하고 짚으로다가 만든 다다미방이….



집 마당에서
자녀들을 찍은 사진

● 난방은 어떻게 하셨나요?

연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부엌을 달아서 썼죠. 그래서 한번 가스를 맡고 동치미 국물 먹고, 옛날에 박카스가 처음 나올 때 그거 먹고. 연탄재로 고생을 많이 했죠.

● 방에 달린 부엌은 선생님 댁만 쓰셨나요?

나만 이 부엌을 썼어요. 다른 사람들은 여기 부엌(안방에 붙어있는) 여기. 이 집에 이 사장 집은 부엌이 엄청 크고, 그 옛날에는 그거 차단스(그릇장)라고 그러냐? 그걸 아주 갖다 놓고 예쁜 그릇 다 진열해 놓고 부엌 부엌집들은 그랬잖아요. 그때 부엌하고 같이 쓰시더라고요. 더 웃기는 거는 여기는 화장실이잖아요. 화장실을 같이 썼어요. 하도 애들하고 귀찮아서 예 장군 댁이 가까우니까 그리로 가서 썼어요.

● 예 장군 댁하고는 계속 왕래하셨던 걸까요?

지금도 하고 있죠. 예 장군님 돌아가시고 자제분들하고도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사모님도 돌아가시니까 점점 끊어지더라고요. 서로.

안암교 밑은 다 판잣집이었죠

● 그 당시 안암동 풍경 기억 나시나요?

개천 쪽으로는 산이고, 아카시아꽃이 만발해서 진짜 진짜 좋았어요. 고대(고려대학교) 지금 건물이 있는 데에 개천이 있었어요. 애기능¹⁸⁾ 앞에. 그래서 그 애기능에서 우리 아들이 가재, 미꾸리, 송사리 그런 고기를 잡아서 병에다 넣고 가져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바뀐 거죠. 그리고 그 개천 복개 공사하기 전에 결혼을 했는데 ‘어머 여기가 서울인가?’ 했어요. 그 개천에서 꾸렁물 내려가고 이쪽은 산인데 언덕배기가 있으니까 애들이 거기서 밤낚 쌀포대 가지고 가서 미끄럼을 타고 와요. 하수도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는 옷에서 밤낚 냄새나는 것만 애들이 가져오니까 못 나가게도 하고 그랬어요. 거기는 진짜 지저분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좋아요? 복개 공사하면서 좋

아진 거죠.



고려대학교 교내 원빈묘 터 표지석

18) 원빈묘터를 말한다. 정조의 후궁 원빈 홍씨의 묘소로 인명원 또는 애기능으로 불렸다. 1950년 6월 13일 서삼릉내의 귀인·숙의 묘역으로 이장되면서 표지석만 남아있다.

● 그 개천은 언제 복개된 건가요?

거기가 옛날에 개천이었을 때 남북 회담이 서울에서 있었어요.¹⁹⁾ 그때 그게 복개 공사가 된 거예요. 그때도 완공을 안 하고 중간까지 했다가 훨씬 뒤에 완공이 된 거죠.



각각 1924년 지적도(좌) 1959년 대서울정도(중) 현재 안암동 지도(우)이다. 개운사길과 애기능 터(고려대학교 이공대학) 주변을 흐르는 물길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고향인 가평이랑 다르다고 느껴지는 것이 있으셨나요?

제가 처음 약혼하고 여기 예 장군집을 찾아오는데요. 신설동밖에 몰랐어요. 신설동에서 차를 내리고 거기서 택시를 잡고 이제 예 장군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버스 노선을 모르니까 기차 타고 청량리 와서 신설동까지는 왔는데 대광학교(대광고등학교) 옆에 다리가 있잖아요. 안암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밑에는 거지들이 살림을 살았어요. 그 다리 밑에서 거기, 거지들이 한 서너 가구가 거기서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서울인가 내가 잘못 선택한 게 아닌가 많이 후회했어요. 거기 다 판잣집이었죠. 다닥다닥다닥. 다 판잣집이고 수돗물도

19)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서 1973년 분회담 전후의 시기로 추정된다.

안 나와서 항아리, 도나무통(드럼통) 놓고 수돗물 받는 시간이 있었어요. 수도가 콰콰 안 나와서 몇 가는 저녁 몇 시부터, 몇 가는 몇 시부터 그러면 항아리에다 그거 받아 놓고 쓰고 그랬어요. 밤새도록 그 수돗물 받아서 쓰고 그랬는데요. 나 여기가 서울인가 했어요. 기숙사에만 있다가 그런 걸 보니까 이거 내가 선택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후회도 많이 했었어요.

● 그 당시 주위에도 사글세로 사는 집들이 많았나요?

많았죠. 옛날에는 아주 가난했어요. 다들 가난하고 밀가루 배급 받았었어요. 옛날 우리 아들, 첫아기 가졌을 때 쌀이 귀하니까 밀가루를 배급제로 받았어요. 그때는 동회²⁰⁾였잖아요. 동회에 가서 밀가루 봉투에다가 받으면 그거 보자기에 싸가지고 온 기억이 나는데요. 내가 가서 저울에다 달아서 타 왔어요.

● 누구나 가서 밀가루 달라고 하면 그냥 다 주는 거였나요?

아니죠, 그 쪽지가 오더라고요. 언제 몇 시에 가서. 그것도 가난한 사람만 줬겠죠, 뭐. 셋방살이하는 사람만.

● 장은 보통 어디서 보셨어요?

안감내 시장이라고 있어요. 용두동 쪽으로. 경동시장은 너무 멀고 안감내 시장은 안암오거리에서 길만 넘으면 있었어요. 지금 농협은

20) 일제강점기 도시구획 단위인 '정(町)'에는 자치조직 '정회(町會)'가 있었다. 해방 이후 일본식 지명이 '동(洞)'으로 정비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자치조직도 '동회(洞會)'로 이어졌다.

행 뒤쫓에. 그리고 옛날에는 구루마(수레)가 엄청 많아서 골목마다
두부도 팔랑거리면서 다니고, “배추요”하고 막 소리 지르면 뛰어나
가서 사고 그랬죠.

3부

이 터가 황금 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안암동 주부들 모여서 꽃꽂이하고 참 재밌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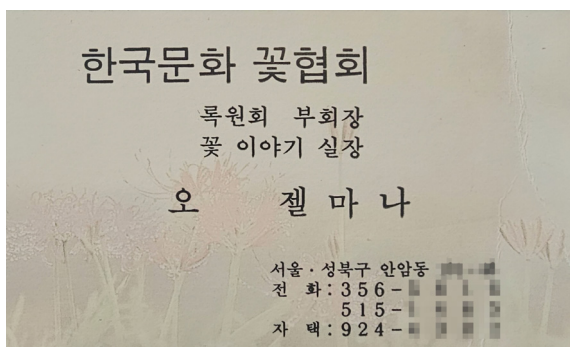
● 신혼 때 여러모로 힘들었다고 하셨는데, 생활을 위해 하셨던 일들이 혹시 있으셨을까요?

진짜 어렵게 살았죠. 그때 군인 월급이 얼마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나도 뭔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하고 2년 있다가 꽃꽂이를 배웠어요. 시골에서 엄마가 비만 오면 삽하고 호미 들고 꽃모종 내던 그 어린 시절 생각이 자꾸 나고, 꽃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시골 가면 들국화꽃 따다가 성당에다가 병에다 이렇게 꽃아 놓으면은 또 누가 이쁘다 그러고…. 성체수녀원 안에 있는 우리 학교가 구산학교²¹⁾인데 구산학교에서 1년 선배 언니가 한국문화 꽃협회 녹원회 회장님이시더라고요. 그 언니한테 전화해서 “언니, 나

21) 구산후생학교

꽃 배우고 싶다.”고 그랬더니 무조건 오래요.

옛날에는 꽃꽂이를 사범증 내는 게 큰 유행이었어요. 사범증 없으면 꽃을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그 꽃꽂이 사무실에 가서 심부름했죠. 처음에는 꽃꽂이에 대한 기본이 없으니까, 청소도 하고, 남대문에 가서 꽃 심부름하고, 시장도 같이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는 꽃꽂이가 재미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꽃꽂이 강좌도 좀 따라다니고 전시회도 네 군데 했어요. 롯데호텔에서도 하고, 아미가호텔(현 그랜드 머큐어 임피리얼 팰리스)에서도 하고 MBC에서 두 번 했죠. 제가 또 거기서 제가 끼가 좀 있긴 있나 봐요. 그렇게 꽃꽂이 전시회도 하면서 안암동에서 그룹 수업을 시작했어요.



당시 사용하던 명함, 젤마나는 세레명

● 수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나요?

그룹 수업은 엄마들 모아두고 보통 내 집에서도 하고, 또 회원 집이 큰 집이 있으면, 큰 집에서도 했어요. 안암동 주부들, 젊은 엄마들이죠. 그때는 계를 많이 했잖아요. 계를 하는 것처럼 모여서 꽃꽂이 하고, 또 점심도 먹고 가고. 그래서 안암동에서 오랫동안 했어요. 저는 그거 하면서 참 재밌었어요.

● 단순 친목은 아니셨을 텐데 수입을 어떻게 만드신 건가요?

수강료는 한 달 수강료로 받고 꽃값은 그날의 시세에 따라 얼마라고 해서 받았어요. 이 꽃값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니까요. 큰 수입은 없어도 내가 꽃 사 오거나 뭐 다른 거 준비하는 비용이 있어요. 그 도구들도 다 사다 줘야 돼요. 꽃은 남대문 새벽시장 가서 사 오는데 보통 10명은 돼야지만 꽃 사 오는 비용이 나오죠. 한두 명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 다 들고 다니는 것도 힘들어요.

● 혼자 사러 가셨어요?

아니죠. 회장을 하나 뽑아놓으면 같이 도와주고 그랬어요. 무슨 축제 때나 꽃을 많이 살 때는 택시를 타지만 웬만하면 둘이서 남대문에서 꽃도 이렇게 나눠 들고 다녔죠. 그때 지하철은 없었고, 남대문에서 여기까지 오는 직행버스가 있었어요. 163번²²⁾인가? 그걸 타고 남대문에 갔었어요.

22) 안암오거리에서 남대문시장까지를 연결하던 노선으로, 이후 노선 조정과 권역 개편을 거쳐 현재의 173번 버스로 번호가 변경되었다.

● 수업은 얼마 주기로 진행하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했죠. 배우는 사람이 일주일 넘으면 잊어버려요. 배울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배워야 돼요. 숙달된 뒤에는 한 달에 한 번 하더라도, 배울 때는 일주일에 한 번은 해줘야지 안 잊어버리죠.

● 모임에서 만든 작품으로 전시회 같은 것도 하셨어요?



1988년 전시회 출품작 앞에서

그리고 그렇게 재미있게 했어요.

제가 개인으로, 꽃꽃이 협회에 서 하는 거는 전시회를 몇 번 하지만 이 그룹으로 하는 거는 이제 누가 생일이요 그럴 때는 자기 집 거실에 해놓고 전시하니까 놀러 오라고 그러고 동네 사람이 몰려다니고 놓고 그렇게 그렇게. (활짝 웃으며) 재미있었어요. 전시회 하려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돈 들어가는 거는 우리 주부니까 하지 말고 여기가 응접실이 크니까 우리 여기서 한 번 할까?

● 꽃꽂이를 배우면 강사 이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이나 그때나 어떻게 하면 돈과 명예를 얻을 수 있나 그런 생각들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큰 호텔을 잡아서 1년 계약을 해요. 1년 동안 그 호텔에서 꽃꽂이에 쓰는 예산이 얼마에 한다는 예산이 있어요. 말하자면 거기에 입찰을 하는 거죠. 꽃 하는 사람은 그것을 하는 게 소원이죠. 근데 꽃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따내려면 꽃꽂이 사범들 간에 어느 라인에 들어가있는지 그런 것도 따져요. 그리고 거기에 남자 꽃꽂이도 꼭 끼어야 돼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여자 혼자 꽃꽂이가 만만치가 않아요. 무거운 것도 많고 노동도, 중노동이에요. 꽃꽂이가 뭐 이렇게 작은 꽃만 꽂으면은 뭐 괜찮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엄청 중노동이에요. 저는 힐튼 호텔에 서도 했었고, 남산 밑에 로얄호텔, 거기서도 잠깐 했는데 거리도 멀고 내 살림이 힘들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 빠지고 그냥 그룹 활동 꽃꽂이만 했죠.

밤새도록 지점토하던 엄마한테 고마운 걸 느낀다고 그래요

● 꽃꽂이 수업 외에 다른 것은 안 가르치셨나요?

이제 꽃꽂이가 하향선을 타더라고요. 옛날에는 꽃꽂이 자격증이 있어야만 강의를 할 수 있었는데 점점 아무나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그렇게 수입이 없어요. 근데 지점토로 만드는 게 붐이 일어났어요. 옛날에 지점토로 만드는 게 엄청 성행했어요. 그때가 제가 삼십 초반일 때 같아요. 서른 세 살 그쯤.... 지점토로다가 쌀 향아리에서부터 화병, 거울 테두리.... 그러니까 시계가 있으면 거기다가 지점토로 예쁘게 꾸며서 만들면 아주 예쁘죠. 지금 우리 집에도 작품이 한두 개는 있어요. 집집마다 쌀향아리, 새우젓 향아리 있잖아요. 거기다 해놓으면 참 멋져요. 예술을 입히는 거죠 뭐. 그때는 왜 이렇게 잘 돼요? 이제는 힘이 들어서 못 할 것 같아. (웃음)



당시 유행하던 지점토 공예 작품들 ©고현주, 「나의 취미: 지점토 공예」,
『서울지하철』 통권 35호,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1989, 49쪽.

● 손재주를 타고 나셨나 봐요.



1980~90년대 여행지에서

젊어서는 지점토 갖고 못 만드는 작품이 없었어요. 동네에서 그룹 활동도 하면서 재미있었어요. 그걸 하면서 애들 학자금에 보탬이 되고, 아이들한테도 안정감을 줄 정도로 제가 지점토로 돈을 좀 벌었어요. 그쯤에 남편이 같은 이북에서 나온 사람하고 주유소를 차려서 동업을 했는데 우리가 동업자한테 사기를 당해서 좀 힘들었죠. 아무래도 우리가 약자니까 그 동업한 돈도

못 받고 끝을 맺더라고요. 그러면서 애들 아빠가 서서히 병이 나더라고요. 그때 손해를 많이 보고, 제가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죠. 그때 좀 힘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엄마가 밤새도록 지점토하던 생각하면은 지금도 엄마한테 고마운 걸 느낀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딸이랑 만나서 얘기하면서도 그때 엄마가 제일 고생했다고 해요. 아이들이 엄마가 잠 한잠 못 자고 작품 하나 만들려고 밤새 지점토 만질 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찡하다고 하는데 그 모습을 지금 와서 생각하면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 그때는 딸 대학을 보내지 말고 취직을 시키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 말대로 학교 안 보낼 테니까 마음 놓으세요.” 그러고서는 여기저기 해서 등록금을 내고 나니까 남편이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사냐고 하는데 그걸 애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

까 지금도 항상 엄마가 밤새서 일하던 게 눈에 선하다고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러는데 지금은 다 잘돼서 아주 사회에 큰 1등을 하고 있어요.

● 꽃꽂이에서 지점토로 유행이 넘어갔다고 하셨는데, 그 뒤에도 지점토 공예 강사 일은 계속 하셨나요?

지점토가 또 하향선을 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구연동화를 한 거죠. 삼성 문화센터에서요. 구연동화 강의 듣고 수료증 받으면서 거기서 제가 별빛 상을 타더라고요. 요새는 저기 아무나 하는지는 몰라도 저 있을 때는 어느 단체에 소속이 돼 갖고 거기서 이렇게 배정하면서 구연동화를 했어요. 저는 거기서 이제 대회에서 별빛 상을 탔어요. 그렇게 구연동화도 하면서 노인정에 구연동화 해주러 갔다가 지금 회장이 된 거예요.



1999년 제3회 전국 여성 동화 구연 대회

고대생들 데모할 때는 우리 집 유리창이 자주 깨졌어요

● 집이 대학가에 있으신데 하숙을 치시지는 않으셨나요?

저희는 안 했는데 그 일대 하숙이 많았죠. 타지역 학생이 많아요. 지금도 그래요. 아마 고대가 하숙 안 하면은 먹고 살기 힘들 겐요?

● 그 시절 안암동은 대학가라 학생들도 많고 데모도 잦았잖아요. 당시 동네 분위기는 어땠나요?

고대생들 데모할 때는 우리 집 유리창이 자주 깨졌어요. 옛날에는 최루탄하고 돌멩이밖에 없었어요. 학생들이 막, 돌 막 던지면 최루탄을 쏘잖아요. 돌 던지다 잘못 던지면 우리 집 유리창에 빵빵 나가고, 그럼 또 고대에서 와서 꺼주고 그런 시대였어요. 아휴, 그때 임신한 젊은 사람들은 안암동에서 못 살게 했어요. 최루탄 냄새가 너무 나서 아기 임신한 사람은 다 친정에 가 있다 오고 그랬어요. 냄새가 보통 못 살 정도였죠. 뭐 아주 떠들썩하게 만들어 놓고, 골목마다 막 지지 분하고 뭐 말도 못하죠.

● 피해보상을 학교 측에서 해준 건가요?

데모 많이 할 때 그때는 우리 집이 그 길가니까는 이제 옛날에는 돌 던지다가 잘못 들어오면 유리창이 깨지지. 그러면 그런 거는 고대에서 넣어줬어요. 유리창 깨지면 고대에서 다 해줬.

● **신고해서 보상을 받았나요, 아니면 돌아다니면서 피해조사를 받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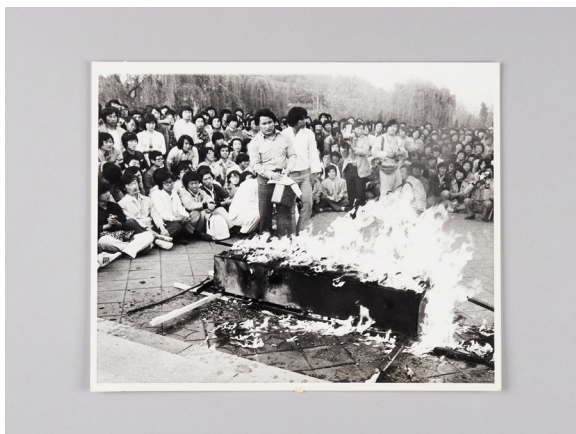
신고를 해야죠. 옛날에 카메라도 없었어요. 핸드폰이 없으니까. 우리는 고대하고 가까우니까 걸어가서 이제 접수하고 오면은 유리창 끼워주고 그렇게 했죠.

● **위험한 상황도 많았는데, 집안 식구들은 괜찮으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저 데모할 때 물 마시면서 하라고 바게스(양동이)로다가 물을 갖다 떠서 대문 앞에다 놔주고 그랬어요. 그때 애들이 중학생이었죠. 그러다보니까 “엄마, 엄마! 빨리 물 갖고 와, 물 갖고.” 부르곤 했어요. 옛날에는 식수 병이 별로 없잖아요. 병이 어디 있어요? 그때는 물을 팔지도 않았어요. 그런 때니까 그저 바가지, 이만한 바게스 거기다가 물 떠다 대문 앞에다 갖다 놓으면 (대학생들이) 그것 먹고 또 데모하고…. 요란하죠. 그때 유리창 쨍그룩(쨍그랑) 나가고 그래서 집에 있다가 잘못하면 다칠까 봐 될 수 있으면 나가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한 이틀 지나면은 또 유리창 끼워주고 평온하고. 그렇게 북아치다가 이제 편안해지더라고요. 그 최루탄 냄새가 더 무섭죠. 눈도 못 뜨고, 막 기침 막 나고.

● 집으로 숨어 들어오거나 그런 학생들도 있었나요?

무서워서 대문을 꼭 닫아놓고 있어서 그거는 못했어요. 우리 집 담에는 장미 넝쿨이 늘 담을 넘어 무성하게 있어서 들어오지 못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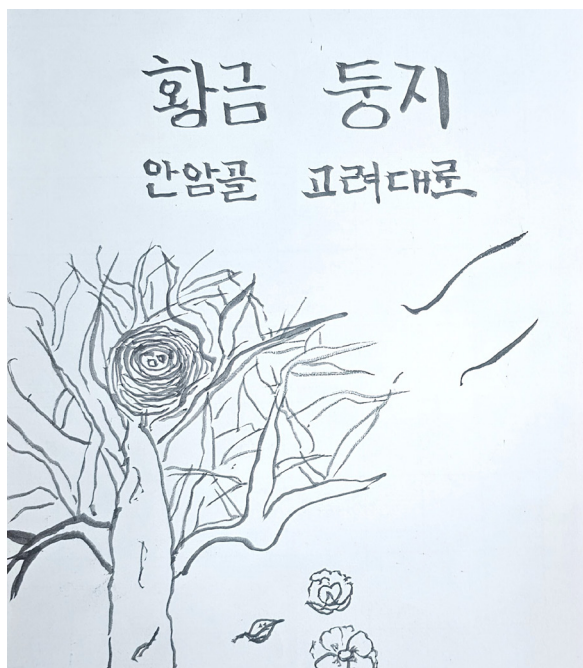
1980년 계엄령 해제 요구 시위를 하는 고려대학교 학생 사진,
©서울역사박물관(서울역사아카이브)

● 데모로 시끄럽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안암동에서 계속 사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동네가 안 좋으면 안 살죠, 저는 그래도 학교가 있으니까 애들 키우는 데도 뭔가가 지침이 될 것 같고. 애들 아빠가 나 몰래 집을 내놓는 적이 있는데 그때 안 팔고 지금까지 잘살고 있어요. 하여튼 데모 때가 제일 힘들었는데 그때 너무 시끄럽다고 친구 둘이 집을 팔고 딴 데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더 아이러니한 거는 안암동이 싫어서 강남으로 이사간 게 그때는 부러웠는데 지금 늙어서 가계부 정리 한

번 해보자 그러면 내가 개네보다 더 나아. 개는 이사 다니느라고 고생했지, 나는 안암동이 발전되면서 집값이 올랐잖아. 그래서 모임에 나가면 깔깔대고 웃고 밥은 내가 사지(웃음). 그렇게 안암동이 발전된 거예요.

남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나는 여기가 황금보다 더 귀한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아이들이 참 잘 자라줬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자라는 게 아니라 바르고 사회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애들로 자라나 줬잖아요. 내가 아무리 천주교를 다녀도 참 아이들이 이렇게 예쁘게 자라준 건 정말 큰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터가 황금 터가 아닌가 그런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구술자가 자기의 집터를 황금 등지로 그린 안암골

얼마나 손님이 많은지 저녁이면은 돈을 포대로 들고 갔어요

- 안암동에 자리 잡고 생활하시면서 나중에는 식당도 운영하셨다고 들었어요. 식당은 어떤 계기로 시작하신 거예요?

그거는 이제 꽃꽂이 교실 옆에 요리 학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꽃꽂이) 시간이 끝나면 요리 교실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시험 보니까 되더라고요.



요리 학원을 다니던 시절 사진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그 자격증을 따놓고 있었는데 고대에 병원이 들어왔잖아요.²³⁾ 또 그때 보니까 손님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요. 우리 집이 빨간 벽돌에 일본 사택이었는데 우리 남편에게 “형님, 형님.” 하는 건축하시는 분이 “형수님, 여기 식당 하면 잘할 것 같다 잘될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난 “우리 집안에 식당 하는 사람이 없어요. 듣고 보지도 못했는

23)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의 전신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2가에 있었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 혜화병원이다. 1991년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으로 신축 이전하여 개원했다.

데 나 그런 거 못한다.” 그랬더니 자기 말만 들으래요. 그러면서 이사만 가래요. 근데 혼자서는 못하겠더라고요. 바로 제 셋째 동생이 그때 피아노 교습소를 했던 여동생이 있어요. 개한테 의논을 했어요. “여기가 식당 하면 괜찮다는데 어떨까? 나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언니, 나하고 둘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힘을 얻어서 우리 가족은 저 뒷집에 전세를 얻어서 살고 우리 집은 그 업자분한테 리모델링 해갖고 얼떨결에 식당을 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손님이 많은지 저녁이면은 돈을 포대로 들고 갔어요. 그때는 그렇게 식당이 없었어요. 우리만 있었지. 그런 데다가 제가 이촌동에서 잘한다는 주방장을 돈 20만 원 월급 더 준다고 꼬셔서 데려왔어요.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참 재미있었어요.



1991년 개원 당시 고려대학교 병원
(좌,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홈페이지)과 2025년 현재 고려대학교 병원(우)의 모습.

● 손님은 주로 어떤 분들이 오셨나요?

불고기전골을 했으니까, 학생들이 주로 오지는 않고, 선생님들, 병원 의사 선생님들이나 그런 분이 고객이었죠. 식당마다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식당이라고 이 손님 저 손님 다 안 오더라고요. 우리 집은 점잖게 노교수님들이 앉자리 있으면 학생들이 안 들어와요. 보통 고대 손님이었어요. 병원에서도 많이 오고. 하여튼 법대하고 정경대학은 우리 집에 카드 놓고 그냥 애들 오면 밥 먹이라고 그럴 정도로 친밀하게 잘 다니셨어요. 옛날 집이 평수가 40평밖에 안 되니까 자리가 그렇게 크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자리가 없어서 못 받았죠.

● 식당은 몇 년 정도 하셨어요?

저는 식당을 3년밖에 안 했어요. 저는 그냥 꽃꽂이를 하고 싶더라고요. 나는 요리 자격증은 있어도 주방에 가서 그 많은 걸 엄두를 못 내겠더라고요. 주방장이 다 하니까는 그저 카운터만 봤어요. 그렇게 식당을 하는데 동생이 잘하니까 동생이 나한테 집세 주고 동생이 하고 저는 꽃꽂이 하고. 개도 한 3년. 재미있게 하다 보니까 지하철이 생기잖아요.²⁴⁾ 그러다 보니까 집이 금이 가더라고요. 우리 집이 바로 지하철 옆이에요. 막 금이 가고 또 지붕이 흔들리니까 물도 새고 그러더라고요.

24) 지하철 6호선은 2000년 8월 상월곡~봉화산 구간이 우선 개통되었고, 같은 해 12월 응암~상월곡 구간이 추가 개통되며 전 구간 운행이 시작되었다.

아주 성실하고 착한 분이었어요

● 앞에서 남편분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어떤 분이셨어요?

남편이 이북에서 넘어왔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전쟁이 나면서 왔대요. 그때 자기네가 인삼밭을 했는데 학교 교문을 나오는데 어머니가 치마에다 인삼을 한가득 가져와서 책을 다 뺏고 인삼을 가방에다 넣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갖고 엄마 생각하면서 밥 한 그릇 하고 인삼 한 그릇하고 바퀴 먹어라.” 그랬대요. 그래서 인삼 든 가방만 들고 동네 사람 따라서 나왔대요. 51년에 입대해서 그때서부터 총대를 멘 거지.



2011년 6·25 전쟁 61주년 당시 사진

그래서 그런지 돌아가실 때 치매가 걸렸는데 자기가 피난 왔을 때
 의 그 고통이 생각나는 거야. 나보고 이리 나오라고 해서 가면 저기
 중공군이 있는데 빨리 도망가야 된대. 처음에는 망상이라고 막 싸웠
 는데 치매 진단을 받고부터는 내가 보파리도 늘 싸났어요. 한 200명
 이 있다고 그러고 무섭다. 빨리 가자 그러면 내가 이거(보파리) 들고
 가자. 그리고 옥상으로 올라갔다가 오고.... 사람이라는 게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죽을 때 나오는 것 같아요. 피난 갈 때, 개성에서 나올
 때 강을 건너올 때 그 늪지대였대요. 맨발로 걸어오니까는 버러지
 (벌레), 거머리 같은 게 물어뜯어서 고생을 했다고 장화를 사 오래.
 그래서 사오면 장화를 또 사 오라 하고. 그래서 지금 장화 네 켤레야.
 돌아가고 나서 지금 시골 가서 농사지를 때 내가 그걸 신어요.

오병자의 남편 안준배

1951년 육군 5816 부대 직속 우격대 입대. 1952년
 제 2차 7개월, 탈환작전, 1953년 삼달리 작전,
 그 공적으로 국방부 인칭, 6. 25 참전 용사, 국가공로
 로 대통령상, 우격대 후 1955년 정식으로 육군입대
 1970년 7월 30일 상사로 육군 30사단에서 전역,
 현재 5816 부대 우격대, 우령탑, 강호도에 강호독립부대
 동지 우령탑에 "안준배" 이름 새겨져 후손들에게
 기억되며 매년 가족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구술자가 적은 남편 안준배 씨의 약력

● 일상생활에서 남편분과 기억 나시는 일화가 있나요?

지금 우리 남편은 돌아갔지만 고맙게 느껴지는 거는 옛날에는 보온통이 없었잖아요. 애들 낳고 자기가 소고기를 다져서 미역국을 끓여서 요만한 항아리에다가 담아 그걸 포장해 와요. 옛날에 비닐도 없었어요. 보자기에다 싸서 그 딱끈한 걸 먹이려고 나를 찾아왔던 거, 남편한테 그게 항상 고마운 생각이 들어요. 애들한테도 그런 얘기하죠. 그리고 어디 강의 나갈 때가 있으면은 구두를 갖다 난로 옆에다 놔서 녹여서 주고. 그제 내가 거슬렸던 거는 “오 선생님 지금 떠났습니다.”하고 강의하는 곳에 다가 전화를 해 주는 거야. 내가 좀 늦을 수도 있는데 전화를 하니까….

그리고 이북 사람이다 보니까 강하죠. 자기 주관은 꺾지를 얹더라고요. 꺾이지 않으면 얹은 대로 대우해 줘야지 꺾으려고 그러다 보면 제가 손해 보잖아요. 그리고 치매를 진단받고 병세가 왔다갔다하다가 완전히 몸져누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 돈 벌어오면 “오늘 이거 벌었다.” 그러면은 씨익 웃고, 그 돈을 자기 자리 밑에다 세 장씩 다 깔아요. 그걸 드러누워 있으면 다린 거 같이 뽀뽀해지잖아요. 다음 날 쓰려고 “그 돈 줘.” 그러면 또 내주고. 돈을 가지런히 해서 자기 밑에다 깔고 자는거 그게 일과더라고. 또 나는 그것도 고마웠어요.

● 메달과 훈장을 많이 가져오셨는데 한 번 설명해 주세요.



2002년 받은 자원봉사 메달과 자원봉사 은장

애들 아빠가 상을 아주 많이 받았는데 많이 태워버렸어요. 이제 상 패도 많이 받고, 아빠가 청소년 선도위원장을 거의 10여 년 했어요. 이 봉사상은 월드컵 때 받은 거예요. 우리 아빠가 개성 탈환할 때 잠깐 미군 부대에 들어있었대요. 그래서 웬만한 영어는 조금 했나 봐요. 그래서 봉사할 때 영어로 통역도 조금씩 하고요. 통역하다가 어려운 거는 손짓발짓하고 그랬나 봐요. 그러면서 한 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거(훈장들)는 6·25 참전 용사로 받은 거예요. 언제 받았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훈장 받을 때 요 국기도 같이 나오더라고요. 성실하신 분이예요. 우리 아빠가 아주 성실하고 착해요. 아무 것도 없어도 그냥 잘 살다 보니까, 부자들보다 못 산 건 아니더라고요.



남편 안준배 씨의 참전 용사 훈장들

상 받은 게 참 많은데 지금 남아 있는 건 별로 없어요. 남편이 돌아가고 보니 내 사진하고 아빠(남편)하고 이만큼이 되더라고요. 나 죽으면 또 애들이 얼마나 슬플까, 이거 애들한테 신세 지기 전에 내 손으로 정리해야겠다 싶어서 옥상에서 드럼통을 놓고 불을 났어요. 그런데 소방대원이 불이 난 줄 알고 막 뛰어 들어왔어요. 여자분이 먼저 들어왔는데 보니까 불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사진만 타고 있고, 나는 울고 있으니까는 나를 와서 꼭 껴안더라고요. 참 그분이 따스한 분인가 봐요. 날 꼭 껴안고 등을 토닥이면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연기가 나니까 저 집에 불이 났다고 서너 분이 신고를 해서 글썄 소방차가 12대가 왔대요. 내가 울면서 “벌금 낼게요. 벌금

낼게요.” 그랬더니 다독이면서 “이런 거 태우시면 안 되고요. 쓰레기 봉투에다 넣으시면 다 태워져요.”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는 못 해요. 찢지는 못하겠어요. 내가 좋은 곳으로 가라고 이렇게 기도 삼아 태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도 안 된다면 쓰레기봉투에다 해서 내놓으시라든지 아니면 물에다가 일주일만 담가놓으면 된다고 가르쳐주고 가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 소방관도 울고, 나도 울고. 그리고 내려간 뒤에 보니까는 얼마나 많이 와서 구둑발로 치냈는지 이틀을 계단 청소해도 지워 지지 않아. 그때는 사진 태우는 게 그렇게 슬프더라고요.

4부

이 나이에 뭘 하겠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존재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제 성격이 가만히 못 있어요

● 대학교와 가까우니 학생들을 마주하는 일도 많으셨겠어요.

아 그럼요. 저는 안암동이 왜 좋았냐면 고대가 있어서 좋았어요. 손자들 아기 때 오면 저는 무조건 고려대학으로 데려갔어요. 거기서 데리고 놀고, 또 우리 손자 큰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 내가 “나는 몇 살이고 어느 유치원입니다.” 이런 걸 원고지에 써서 외워 오게 했어요. 그리고 학생 붙잡고 “학생, 학생. 이리 와 봐. 우리 손주가 웅변을 한대. 들어봐.” 그러면 학생들이 귀여우니까 짹 와요. 집에서 외운 거 거기서 하라고 하면 손자가 또 똑똑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라면도 학교에서 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사 먹이고, 고대 전경 보여주고. 어떤 때는 학생들하고 이야기하고, “형, 형” 부르면서 다니라 그러니까는 손자가 우리 할머니가 고려대학교 교수님이라고 생

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에 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너는 어디서 왔니?” 이러니까 “한국에서 왔는데 고려대학교 아세요? 우리 할머니 고려대학교 교수님이예요.”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 딸한테 무슨 과 선생님이냐고 물어보러 왔대요. 아유, 이렇게 웃은 일도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안암동 떠나본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했어요. 또 제가 자전거를 배웠는데 고대에 밴드부가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에다 계란 한두 판 삶아서 신고가서 “할머니 왔다!” 그러면서 밴드부 학생들이 계란 가져가서 먹고. 재밌었어요.

● 자전거는 언제 배우신 거예요?

나이 많아서 배웠어요. 제 성격이 가만히 못 있어요. 시간이 비면은 뭔가 나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자꾸 업그레이드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석관동에 주부 자전거 교육 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배웠죠. 근데 자전거를 자꾸 집어 가서 세 대를 잃어버렸어요. 이제 나이 많으니까 집 안에 올려두기도 힘들고…. 자전거 지금 손 놓은 지가 한 5, 6년 됐죠.

● 배우고 싶었던 계기가 있으셨어요?

뭔가 모르게 달리고 싶더라고요. 그냥 자전거 몰고 한번 달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석관동에 가면은 배우는 데가 있어요. 주부반인데 전부 젊은 엄마들이죠. 제가 배우러 왔다고 그랬더니 고개를 까웃까웃하면서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넘어지면 큰일

나요.” 그래요. 근데 괜찮다 하고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 육상 선수여서 운동에는 자신 있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의정부까지 자전거로 다녀봤어요.

그리고 제가 고대 문학반에 좀 들어가 봤었어요. 가서 몇몇 학생들하고도 얘기도 해보고. 그 강의도 못 들어가는 건데 식당을 하다 보니까 교수님들을 알잖아요. 그래서 몇 번 청강식으로 들었죠. 그게 과정이 있는데 저는 바쁘다 보니 다 못 마쳤어요.



고려대학교 캠퍼스

● 왜 들어보신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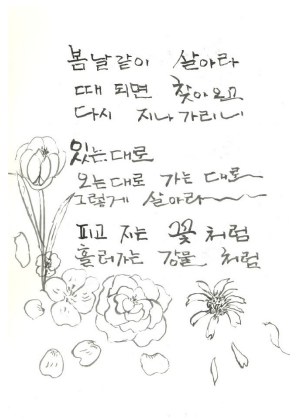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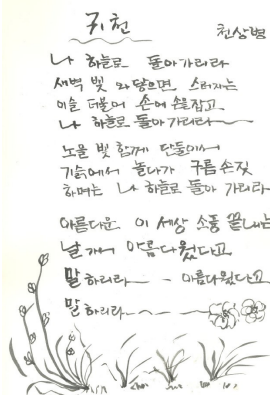
내가 모르니까 들어보고 싶었죠. 왜냐하면 안 쓰다가 쓰려니까 식당 할 때 ‘불고기’ 하나 쓰더라도 힘들더라고요. 내가 이런 걸 배우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에서 배우고 싶었어요.

● 그 수업을 같이 듣는 분들은 몇 분 정도 계셨어요?

타지역에서 많이 오시고 안암동 분은 둘이 있었어요. 한 분은 우리 신학교 후배인데, 개하고 둘이 다녔어요. 다 4, 50대 젊으신 분들이더라고요. 저 어디 가든지 제일 할머니야. 요새 다들 똑똑해서 뭔가 배우려고 그러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 그림도 자주 그리시는 것 같은데 그림을 따로 배우셨어요?

저는 배운 거는 없어요. 근데 우리 친구가 그림을 유화로 그려서 전시회도 하고 작가 반열에 오르더라고요. 초등학교 친구라 개네 집을 자주 가서 보니까 물감 사는 데도 어딘 줄 알고, 붓도 사는 것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혼자 그리기 시작했어요. 또 남편이 오랫동안 아팠으니까 그 곁을 떠나면 안 될 것 같아서 늘 아빠 옆에서 놀이 삼아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도 좋아하고, 병간호하면서도 나도 좋고 행복했어요.



구술자의 시화(詩畵) 작품들. 「귀천」은 구술자가 가장 좋아하는 시라고 한다.

성당에서 봉사 다니면서 18년 동안 한글반을 가르쳤어요

● 선생님의 삶은 쪽 배움과 베품이 계속 순환되는 것 같아요.

성당을 열심히 다니면서 제 머릿속에는 늘 내가 그렇게 큰 집안에 큰 어르신 밑에서 자라지는 않았어도, 부모님께 누는 안 끼치고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머물지 않고 뭔가 자꾸 도전하고 싶었어요. 제가 제기동성당을 다니거든요. 돈암동성당이 성북구인데 거리 상으로는 제기동성당이 가까워요.

성당에서는 레지오 반²⁵⁾이라는 특수반에 봉사반이 있어요. 나는 내 체질에 그게 맞아서 동대문복지관으로 봉사를 나갔어요. 제기동성당에서 봉사 다니면서 18년 동안 한글반을 가르쳤어요. 성동복지관, 거기서도 7년 정도 한글 가르쳤죠. 이제는 노인정에 들어왔으니까 그만뒀는데 진짜 기억 자도 모르는 할머니들 반에 들어가서 ㄱ(기억), ㄴ(니은)서부터 일기 쓰는 것까지 마스터시키고 나왔어요. 지금도 김치 때 되면 계단에다 놓고 가시는 분이 계세요. 아주 할머니인데도 고맙다고 주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은 많이 돌아가셨지만, 몇 분들은 지금도 김장 때면 알타리 김치 사 만들어서 제 문 앞에다 놓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25) 레지오 마리아에(Legio Mariae): 가톨릭 평신도 조직으로, ‘성모님의 군단’이라는 뜻이다. 기도 와 봉사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본당마다 여러 소그룹이 운영된다.

● 그 한글반은 주로 어떤 분들이 와서 수업을 들으셨나요?

제가 가르치다 보니까는 동네 분들은 얼마 없더라고요. 사방에서 오시더라고요. 노량진, 의정부 그런 데서도 오셔서 제가 “왜 이렇게 먼 데서 다니세요? 가까운 데도 있는데.” 그러면 아주 성공한 자녀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피해서 이렇게 멀리 온다고, 소풍 겸 멀리 오는 게 재밌다고 하면서 멀리서들 오시더라고요. 주로 할머니들이세요. 남자분은 한 서너 명 있다가 베겨내지(버터내지) 못하더라고요.

● 당시 배우시는 분들 연령대는 어느 정도 셧나요?

40대도 있어요. 뭐 우리가 다 공부한 것 같죠? 안 그래요. 힘들어서 공부를 못 하신 분들이 있어요. 40대도 간혹 보여요. 창피해서 도망 오듯이 와서 배우고 가시는데 보통 60, 70대에도 공부를 하러 와요. 그거 보면 참 곱더라고요. 그 관계가 제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 뿌듯하셨어요?

예. 뿌듯했어요. 아주 어머니들이..., 배우려고 그러는 할머니들은 예쁘잖아요. 탄jit 안 하고 뭔가 자기 가치관을 세우려고 그러는 엄마들은 보기가 참 좋아요.

봉사하러 갔는데 회장으로 붙들어 댔어요

● 현재 안암동경로당 회장으로 계시는 데 계기가 무엇인가요?

처음에는 봉사러 갔어요. 내 판에는 구연동화도 했으니까 재미있는 책 읽어주려고. 우리 천주교에서는 봉사활동하러 이런 데로 잘 돌아다니잖아요. 옛날에 내가 목소리가 참 예뻐대요. 그래서 책을 읽어주면은 좋아하겠지, 그리고 흘러간 노래도 같이하면 좋겠지, 그런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노인네들이 귀가 어두워서 이야기는 안 먹히더라고요. 이야기도 안 되고 노래는 하면은 따라서 하는데 저는 또 그런 체질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뜸했더니 밥 한번 먹자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터줏대감이 회장 한번 하라면서 노인회장으로 붙들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리고 한 게 벌써 이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안암동경로당이 있는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건물 전경(좌)과
안암동경로당 입구(우)

● 회장님의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암동경로당 앞에서

정부에서 나오는 돈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옛날에는 현찰로 받아다가 관리했는데 지금은 파 하나를 사도 카드를 써요. 그 카드 관리를 잘해야죠. 경로당은 노인들의 천국이에요. 늙어가는 모습 마주 보면서 위로해 주고 위로받으며 먹고 웃고 수다 떨고 화투도 치고 즐거운 시간 보내니까 천국이죠. 그런데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싸울 때가 있어요. 남의 말은 안 믿고 자기 말만 내세

우니 그 고집은 꺾을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 대장으로 살다가 한데 모여서 누구한테 지겠어요? 벌써 대화 몇 번 해보면 저 할머니 어떻게 여생을 보냈구나를 대충 알 수 있잖아요. 살아온 과정이 다르니까 어처구니가 없어도 그냥 허허 웃고 넘어가죠. 그 뭉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가치관이 서로 다르니까요.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분위기 맞추는 것이 참 힘들어요. 상처받은 할머니는 위로해주고, 또 상처를 준 사람을 이해시켜야 하고 그 과정이 노인회장으로서 그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게 제일 심적으로 힘든 것 같아요.

● 회장님으로서 특별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을까요?

노인정하면서 자꾸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할머니가 있어서 ‘저 할머니 다루기 참 힘들다’ 생각하다 그 집 자손을 불러서 내가 혹시 모르니까 자녀분들이 치매 검사 좀 해보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치매시더라고요. 그 할머니는 진단받으시고 나갔어요. 노인정에서 나가게 되면 할머니 유치원²⁶⁾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아침에 가서 저녁에 집에다 데려놓는데 그리로 가셨어요. 그런 할머니들 인생 상담을 잘해야 돼요. 그런 애로사항이 노인정은 좀 있어요.

● 어르신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아유, 있죠. 경찰도 와요. 할머니들이 불안하니까 경찰을 불러요. 그래도 노인정이 있다는 게 사회가 참 잘해주는 거예요. 오갈 데 없는 할머니들 외출 안 하면은 그 하루를 어떻게 보내겠어요? 그리고 그 화투장만 붙잡으면 싸우는 일이 별로 없어요. 만나면 4명씩 한 조가 돼서 5,000원 내고 놀다가 끝날 때 다시 5,000원 다시 찾아가고 이렇게 재미 삼아 화투 놀이를 해요. 이렇게 만나서 놀고 그러면 자녀분들한테도 좋잖아요. 수명이 너무 길어. 88세가 한 열 분이 있어요. 제가 막둥이에요. 구십 넷이신 분도 계시는데 정정하세요.

26) 어르신 유치원, 주간보호센터(day-care center)를 말한다. 고령 어르신이 낮 동안 센터에 머물며 돌봄·여가·재활 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 장기요양기관이다.



2025 새해맞이 경로당 신년 인사 때 경로당 식구들과 ©성북구청

● 힘들 때는 어떻게 해소하세요?

가끔은 미운 할머니도 있어요. 그런 할머니 보기 싫어요. 근데 제가 주말에는 우리 친정, 시골에 가 있거든요. 또 시골 가 있다 보면 그 할머니가 똑똑한 할머니라서 그런가보다 이해가 되고 또 예뻐 보여요. 그래서 시골 갔다 오면은 새 마음을 가지고 올라와요. 그래서 시골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노인정을 끌고 있는 지도 모르죠. 늘 할머니들이 예쁘게 봐주니까 조금 마음이 안 좋아도 시골 갔다 오면 괜찮아져요. 시골에 사람 없어서 사람 구경 하나 못하고 올 때가 있어요. 내 집에만 있다 올 때가 있는데 그러다 올라오면 역시 서울이 좋긴 좋은가 봐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오래 할 것 같아요.

● 회장을 맡게 되신지 몇 년 되셨나요?

노인회장 한 지 지금 8년째네요. 노인회장 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회장이 잘 들어왔다고 이제 모든 행사를 우리 노인정에서 하더라고요. 구청장님도 자주 오시고, 동장도 자주 들리더니 동장이 나를 또 통장으로다가 엮어놓고 간 거였죠.



안암동경로당 회장으로서 '2025 안암어울림한마당'의 개막 선언을 하는 모습
©성북구청

전국에서 최고령 통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 하셔야 하는 일이 또 하나 생기셨네요.

주민센터에서 자꾸 왔다 갔다 신경 쓰시다 보니까는 동장님이 오셨다가 아이고 오명자 님이 우리 통장 좀 하라고 그래요. “아, 내가 나이가 몇인데 통장을 해요.” 그랬더니 “아 괜찮아요. 오명자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최고령 통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테레비에 나올 줄 몰라요. 올해 4월부터 한 거예요. 근데 이 늙은이를 글썽 통장 자리다 놔두더니 요새 호구 조사²⁷⁾하러 다니냐고 바쁘다니까요.



통장 명함

● 조사하러 다시시면 집집마다 사정을 잘 아시겠어요.

저희 통은 원룸을 해서 학생들에게 세 받아먹는 건물이 많아요. 그 학생들 인구 조사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찾아가면 본인이 없어요. 늘 바쁘고 젊은 친구들한테 전화하면은 뭐 그런 것까지 다 사인을 받아야 되느냐고 응해주지 않는 학생이 많아요. 어저께도 하루 종일 아홉

27) 2025 인구주택총조사를 말한다.

집밖에 못 했어요. 그런 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 통장이 되면 어떤 일을 하나요?

통장은 저같이 좀 오래 산 사람이면서 주민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사람을 뽑아요. 제가 4월부터 했으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경험에 의하면 집을 이주하는 사람들 확인서, 이 사람이 주소만 놓고 사는 건지 진짜 거주하는 건지 확인해요. 그리고 민방위 훈련이나 그 지역에서 뭐가 고칠 게 있으면 그거 상부에다 적어 올리고, 도로가 분실됐으면 그런 거 신고해야죠. 거리에 철거할 것을 안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은 그거 빨리 해 달라고 내가 민원 제기하고. 내 통을 관리하는 거지, 말하자면 살림하는 거예요.

● 그 지역 살림을 맡으시는 거군요.

18통 살림하는 거예요. 재밌더라고요. 이 나이에 뭘 하겠어요? 내가 살아 있다는 존재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또 젊은이들하고 대화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내 자존감을 세우는 것 같고, 그래서 좋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제가 인구조사 하느라 500집을 다 봤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아, 이렇게도 사는구나!’ 그런 걸 좀 많이 느껴요. 근데 학생들은 이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관여하고 싶지 않은가 봐요. 자기 세계만 있지, 공동체 이런 거에는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한 건물에 학생이 한 25명 내지 30명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옆방에 사람이 있으면 소개를 해

주면 내가 (조사가) 좀 쉽잖아요. 근데 절대 안 해줘요. 개인주의가 심하니까 어떨 때는 한번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알밋더라고요. 조금 서글플 때가 있어요. 옛날에는 서로 도와줬어요. 학생들이 장바구니도 들어다 줬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요. 나는 내가 애들 키울 때 생각하고 이것 좀 가르쳐 달라면 가르쳐 주겠지, 생각했는데 천만의 말씀, 전혀 없어요. 개인주의가 너무 발달하는 것 같아요.

● 이번에 통장을 하면서 변화를 느끼신 거예요?

저는 밤낮 “내가 그냥 이 안암동 주인이다.”하고 돌아다녀서 그런 거 못 느끼고 애들 보면 좋아하고 그랬는데 통장하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안암동 일대와 고려대학교, 안암골 벽산아파트에서
고려대병원 방향으로 촬영한 모습이다. ©성북구청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 상권이 고대 중심으로 돌아가다보니 상권에 변화가 생겼을 것 같아요.

그전에는 로타리²⁸⁾ 쪽이 번성했었죠. 로타리에 먹자 주점도 많았고 거기가 왁자지껄했는데 이제 지하철이 생기면서 상권이 지하철 쪽으로 몰리는 거죠. 지금도 우리 사는 데는 조용하지는 않아요. 아휴, 대학 축제 때 와보세요. 고연전 때는 잠 한잠도 못 자요. 어떻게 애들이 연대하고 한 데 합세해서 아주 떠들썩하게 만들어 놓고, 골목마다 지저분하고 뭐 말도 못하죠.

- 식당을 하시던 때와는 분위기가 다른가요?

제가 식당할 때는 그렇게 단위(단가) 높은 식당은 없었어요. 그냥 보통 식당이었는데 지금은 좀 좋은 데가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안암동이라는 데는 주차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졸업식에는 안암동에서 이 학생들이 식당을 찾아야 하는데 지하철이 있으니까 지하철 타고 다 나가더라고요. 지하철을 타고 나가면 넓은 공간도 많고 식당도 있는데 구태여 여기서 식구들이 모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암동 식당 상권이 죽더라고요.

주차장은 없고 집만 뽁뽁해요. 그리고 다들 집을 안 내놓으려고 해요. 나부터도 계산해 보면 타산이 안 맞으니까 안 내놓는데….

28) 현 안암오거리. 보문로(신설동-돈암동)와 종암로(경동시장-종암동)가 대각선으로 교차하는 중간 지점이다.



현재 안암역과 안암오거리 상가의 모습

● **안암동에서는 대부분 나가는 분들이 없이 오랫동안 머무신다고 하시는데 이유가 있나요?**

그 땅에서 방을 하나 들이면 월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 땅을 붙잡고 있으려고 그러지, 딱 데 가서는 그 돈 주고 이런 수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안 나가요. 안암동은 집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애들 공부 가르칠 수 있는 것 같아요.

상가랑 다세대 주택, 원룸은 많은데 가정집은 얼마 없어요. 그래서 마트가 하나 생겨도 장사가 안 되니까 조금 있다 다 접어요. 다 학생들이니까 24시 편의점은 잘되는데 마트에서 뭘 안 사잖아요. 주부들이 많아야 마트에서 채소도 사고, 먹을 것도 사고 그럴 텐데. 이번에

호구 조사 다녀 보니까 원주민이 사는 집은 쪼끔이에요. 다세대 주택이나 원룸을 지은 사람들은 다 다른 동 사람이고 여기 살지를 않아요. 통째로 지배인만 하나 딱 두고 원룸 방 다 주니까는 뭐 팔리는 게 없나 봐요. 마트가 생겨도 6개월이면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뭘 살려면 경동시장에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보문동으로 가야 하고요. 그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살림하는 집은 그게 조금 힘들어요.

● 그러면 오히려 재개발 같은 건 힘들겠네요.

재개발보다는 요새는 다들 신축 건물을 지어요. 오래 살았던 집들은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유산을 나눠야 하니까 팔아요. 그러면 또 타지 사람이 사서 원룸을 크게 짓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파는 거지, 내가 팔고 딴 데 가서 산다는 사람은 드물어요. 벌써 제가 아는 분들도 자식들이 아버지, 엄마가 준 집을 유산으로 가지면 곧바로 못 나누니까 그걸 팔아서 서로 나누려고 하더라고요. 추세가 그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원룸 지어서 학생들한테 세주는 사람들은 변변치 않은 작은 방이라도 세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방은 거반(대부분) 중국인들이 살고, 좋은 원룸은 다 한국 아이거나 미국 애들이에요. 조금 방값이 싼 데는 거반 다 중국 애들. 서로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원룸은 노는 방이 있어도 조그만 방, 싼 방은 노는 날이 없어요.

● 외국인 학생들도 많이 보시나요?

많아요, 중국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중국 학생들 말고 미국 애들도 있어요. 근데 외국에 있는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술집을 해요. 그런 추세가 있더라고요. 또 저희끼리 팔고 사고 그래요. 우리 집 지하가 술집인데 나한테 주인이 바뀌었다고 그러면서 사업자등록증 갖다줬어요. 계약서는 내가 써 주는데 복덕방을 안 통하고 자기들끼리 알아보고 계약하더라고요. 지금 벌써 세 번을 그렇게 바뀌었어요. 지금도 불문학과 3학년 학생이 사장이에요. 아르바이트하던 아이가 인수해서 하더라고요.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 이렇게 동네가 많이 변해왔는데, 요즘 일상은 어떠세요?

이번에 통장하면서 힘든 것도 있는데 재밌어요. 하여튼 도전하는 게 전 재밌어요. 어려운 게 싫기보다는 재밌어요. 제가 가만히 나는 어떠한 종류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나는 스킨다비스(스킨답서스)²⁹⁾다. 나는, 내 인생은 스킨다비스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스킨다비스가 그냥 잘라서 맑은 물에다 꽃아 놓으면은 뿌리를 내리고, 하늘을 보고 자꾸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것만 잘 가꿔 놓으면은 꽃다발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그 화초 자체가 공기를 정화시키는 아주 이로운 식물이에요. “나는 아무 데 갖다 놓아도 적응할 수

29) 스킨답서스(scindapsus): 스킨다비스, 신답서스라고도 불리며, 병해충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다. 다양한 실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일산화탄소와 폼알데하이드를 제거하는 공기 정화 능력이 뛰어나 관엽식물로 널리 활용된다.

있다. 그러니까 나는 스킨다비스다.” 그렇게 생각해요. 애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우스워 죽겠다 그래요. “엄마가 철학자가 되는 것 같으네.” 그러면서 그렇게 저를 놀려 먹어요. 힘든 것도 많았지만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고, 또 이만한 것만 해도 “나는 복 많은 여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되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다시 한번 생각하자.” 제 좌우명은 그거예요. 그래서 통장 하는 것도 내 노후에 심심치는 않구나. 다행이고 감사하는 일이라 생각해요. 그냥 감사한 마음이죠. 지금 여기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에필로그Epilogue



꽃을 사랑하시는 분이셔서일까요? 오명자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면담을 하면 할수록 화사한 꽃과 같은 삶을 살아오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6·25 전쟁과 그 이후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역사의 격변기를 겪으셨지만, 그 시간들을 배움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도전, 더 나아가서 이웃과의 나눔을 통해 오명자님의 인생의 꽃을 피워가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배움의 열정은 멈추지 않고 노인회장으로, 통장으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이야기들을 가까이에서 들으면서 멋진 시니어의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고려대학교를 중심으로 변화된 안암동의 역사를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귀한 기회를 만들어 준 성북문화원에 감사드립니다.

신해영

구술생애사 첫 인터뷰에 참관했을 때의 장면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오명자 선생님의 첫인상은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바른 자세와 청량한 목소리, 고운 말투와 단아한 모습. 무엇보다 오랜 시간 다듬어 온 말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는 배려심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삶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격동의 시대를 살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삶은 잔잔하고 담담해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선 여느 어르신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은 듯했지만, 그 안에는 어려운 시절에도 가족을 지키고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며 씬 없이 움직여 온 강인한 여인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삶의 고비마다 슬기롭게 대처하며 이겨내셨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즐거움을 찾아 고통의 시간을 행복한 순간으로 바꾸어 오셨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며 그러한 삶의 태도가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80년이 넘는 인생의 시간을 성실히 지켜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였습니다.

구술생애사 작업을 함께하며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고민에 머무는 시간보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기 위해 계속 도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삶은 주어졌지만, 그 삶을 나답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 일은 결국 스스로의 몫이라는 사실도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상과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고, 그 깨달음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고민할 시간에 움직여라.”

오명자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답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간 느낌을 받았습니다. 종교적 믿음과는 또 다른, 삶을 향한 단단한 확신이 마음속에 자리 잡은 듯했습니다. 선생님의 삶은 앞으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어떤 목표를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구술생애사 작업은 한 사람의 삶을 기록하는 시간을 넘어, 나 자신의 삶의 태도를 되묻는 과정이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이 소중한 경험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은영

구술생애사 책 만들기 작업을 여러 해 담당하며,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이며, 글을 정리할 때면 자연스럽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삶을 대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명자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배움 그 자체보다도 계속 배우려는 태도가 삶을 앞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번 인터뷰 자리에 꽃을 준비해 건네주시던 모습 또한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생애를 정리할 수 있어 고맙다고 늘 말씀해 주셨지만, 오히려 저는 그 시간 속에서 더 많은 것을 건네받고 돌아왔습니다. 함께 인터뷰에 참여해 주신 주민기록단 선생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진아

이미지 출처

- 16쪽: 남윤중 촬영
- 20쪽: 남윤중 촬영
- 22쪽: 오명자 제공
- 23쪽: 오명자 제공
- 24쪽: 오명자 제공
- 27쪽: 가평군청 홈페이지
- 31쪽: 오명자 제공
- 33쪽: 호주전쟁기념관(Australia War Memorial)
- 36쪽: 국가기록원
- 37쪽: 중부교육 디지털 박물관
- 39쪽: 오명자 제공
- 41쪽: 가평문화원, 『2005 가평군 중등교육 50년사』, 2005.
(지역문화 제공)
- 44쪽: 남윤중 촬영
- 48쪽: 오명자 제공
- 51쪽: 오명자 제공
- 54쪽: 『동아일보』 1962.10.29.(한국사데이터베이스 제공)
- 55쪽: 오명자 제공
- 58쪽: 오명자 그림
- 59쪽: 오명자 제공

- 61쪽: 성북문화원 촬영
- 62쪽: 국가기록원 지적아카이브(좌), 대서울정도(중),
성북 공공데이터 플랫폼(우)
- 66쪽: 남윤중 촬영
- 68쪽: 오명자 제공
- 70쪽: 오명자 제공
- 72쪽: 고현주, 『서울지하철』 통권 35호,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1989.(국립중앙도서관 제공)
- 73쪽: 오명자 제공
- 74쪽: 오명자 제공
- 77쪽: 서울역사박물관(서울역사아카이브) 소장
- 78쪽: 오명자 그림
- 79쪽: 오명자 제공
- 80쪽: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홈페이지(좌), 성북마을아카이브(우)
- 82쪽: 오명자 제공
- 83쪽: 오명자 제공
- 85쪽: 오명자 제공
- 86쪽: 오명자 제공
- 90쪽: 남윤중 촬영
- 93쪽: 남윤중 촬영
- 94쪽: 오명자 그림
- 97쪽: 성북문화원 촬영
- 98쪽: 오명자 제공
- 100쪽: 성북구청 제공

- 101쪽: 성북구청 제공
- 102쪽: 오명자 제공
- 104쪽: 성북구청 제공
- 106쪽: 성북마을아카이브
- 109쪽: 남윤중 촬영
- 110쪽: 성북문화원 촬영